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한여름
밤의 **출격!**



GLOBAL &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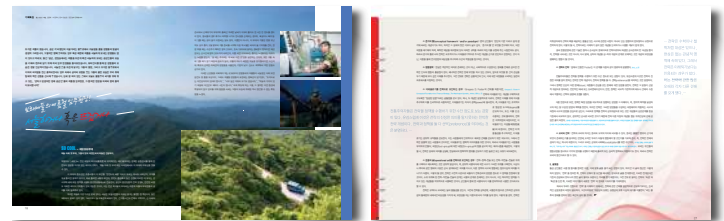
06



- 06 삼각지 논객 미디어산업, 대격변기에 들어서다.
- 08 World-Wide Vision 천둥을 일으키는 마법사
- 12 Global AF 영국 본토 방공전, 현대 항공전의 시발점이 된 전투
- 16 Leadership+ 감정적 보상을 하라

공군IN

18



- 18 기획특집 보라매들의 여름철 임무현장!
- 25 Pioneers up above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항공전락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
- 28 포토프레임@AF
- 30 AIR FORCE MONTHLY
- 34 생각하는 그림 나태한 삶은 지옥이다

COVER STORY



KF-16의 야간출격, 제20전투비행단
 모 델 : NIKON D300 촬영모드 : Aperture Priority
 노출시간 : 150/10 sec 최대조리개값 : f/4.0
 표지촬영 원사 김송주 | 제20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CULTURE 36.5

38



- 38 Hollywood English 내 이름은 칸
- 40 인생은 아름다워 운명의 장난 속에 맺어진 죽음의 사랑, 베르디의 오페라(아이다)
- 42 Behind the Canvas 빈 미술사 박물관
- 44 Air-Supply 최고의 사랑, 이 세상 비호감들을 위한 위로가
- 46 Preview 7월의 문화행사

OPINION

0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5월호를 읽고서
- 48 독자기고 창공을 생각하는 시간
2011 공군 조종사 자긍심 함양 교육 수기
- 52 창공 글터 조종사는 풀꽃이다
- 54 Health Diary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 56 책마을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MONTHLY MAGAZINE

VOL. 397. 2011. 07

발행일자 2011년 6월 30일(통권 제397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5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설렘]이다. 매월 발간되는 월간지인 만큼 다가오는 발간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우수한 정보력과 참신한 기획물, 저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5월호에서는 <삼각지 논객>의 '공중급유기 도입, 공군력 극대화를 위한 선택 아닌 필수'를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공중급유기 도입에 역설하는 이 기사야말로 한 마디로 '공감'입니다. - 부산 강서구, 윤한성

02 월간 「공군」은 [불빛]이다. 밝은 낮에는 커봐도 표시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는 선명한 지표가 되는 것이 불빛입니다. 평화시에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군을 총체적으로 다뤄주는 월간 「공군」은 그래서 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간 「공군」은 짜임새 있는 읽을거리가 가득하네요. 필자도 쟁쟁하고 균형 잡힌 시각도 많은 공감을 하게 되고,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전북 익산시, 김승규

월간 「공군」은 [추억]이다. 공군병 78기로 제대하여 공직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고회를 넘겼으니 노년이군요. 50년 전, 공군 생활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활주로 제설작업, 중대대항 배구대회, 진주로, 삼천포로 외출하던 청춘시절 추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짧은 3년이 평생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는 추억거리였죠. 5월호에서 재밌게 읽었던 기사는 <기획특집> '공군병,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입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재밌게 읽었습니다. - 전북 고창군, 안재운

04 월간 「공군」은 [병사들의 희망]이다. 2년간의 군복무 동안 아무래도 사회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월간 「공군」을 통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월간 「공군」을 병사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호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눈> '자연재해와 군'이라는 기사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환자공수나 산불진화 등 대민지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조종사와 항공구조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 충북 청원군, 조성현

월간 「공군」은 [김치]이다. 우리나라 대표음식이라 하면 역시 김치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월간 「공군」 역시 대부분의 공군장병이 즐겨본다는 점에서 김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표현했습니다. 5월호에서는 <기획특집> '공군병, 오늘의 공군을 만든 투혼'이 기억에 제일 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병 17기 출신이셔서 초창기 병사들의 군생활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휴가·군복 등 다방면에서 군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고, 내가 현재 쾌적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기 성남시, 이효상

06 월간 「공군」은 [앨범]이다. 대외부서에서 근무하는 공군인들은 월간 「공군」을 보며, 공군의 근황을 알고 스스로 공군인임을 느끼고 되새기게 됩니다. 마치 앨범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것처럼요. 월간 「공군」의 세련된 아이템과 콘텐츠는 세련된 국제신사인 공군의 이미지를 대변해 줍니다. 월간 「공군」은 공군인의 이러한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공군」은 공군문화의 핵심체널입니다.
- 서울 용산구, 신기훈



Global & Insight

미디어산업, 대격변기에 들어서다

* 삼각지 논객

천둥을 일으키는 마법사

* World-Wide Vision

영국 본토 방공전(Battle of Britain)

* Global AF

감정적 보상을 하라

* Leadership+



미디어산업, 대격변기에 들어서다.

“신문에서 라디오로, TV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소셜미디어로, 아이패드로...”

시청자와 독자가 정보를 얻는 수단(통로)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 등사기로 밀어 찍어내던 신문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대량화, 전문화되면서 신문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30년대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비록 TV 출현으로 라디오가 고전했지만 여전히 눈으로 즐기기도 하는 귀를 열어 놓은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라디오가 정보 유통의 한 수단으로 여전히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똑똑한 TV’ 등장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골라 보는 시대가 열렸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각종 뉴스와 영화, 드라마, 요리 등등 자신의 기호에 맞는 콘텐츠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보기도 하고, 즉석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똑똑한 TV다 보니 배우가 입고 나온 옷도 어디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를 검색할 수도 있다.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 유통의 혁명을 초래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 됐다.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유명 배우나 정치인, 기업인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단문이 주요 기사거리가 되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신문과 방송을 앞질러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다. ‘어디서 대형화재가 났고 몇 명이 화상을 입었다’, ‘홍수로 어느 지하철역이 침수됐다’는 등등 재난재해 때에는 신문과 방송보다 더 빠르게 사진과 동영상, 속보들

이 유통된다. 신문과 방송기자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괴물이 태어났다. 아이패드다. 언론학자들은 이제 아이패드 시대라고 공언한다. 대형 신문사들도 아이패드용 기사를 별도로 제작하고 있다. 아이패드에 제대로 어울리도록 편집기능도 개발하고 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아이패드로 독서하는 인구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책이 통째로 아이패드 속으로 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인쇄소도 망하게 생겼다. 그럼, 아이패드 다음은 또 어떤 것이 등장할까?

필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4월 30일 미국발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3주간 미국의 5개 도시를 도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미국을 돌면서 언론사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해답은 없었다. 뉴욕타임스, CNN, 머큐리뉴스, 언론학자 등의 대답은 “모르겠다”로 귀결됐다. 아이패드 다음에 뭐가 나와 정보 유통에 가세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산호세주립대학 저널리즘학과와 김 코메니치 교수는 “앞으로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아이패드가 (정보 유통시장)를 점령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서 탭 댄스 음악으로 춤을 추며 돈을 버는 흑인 예술가도 아이패드로 곡을 선곡하고 있다. 아이패드에 다양한 탭 댄스 음악을 깔아놓고 제 기분에 내키는 대로 틀고 춤을 춘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다가 1달러짜리 지폐 한두 장을 놓고 간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기차 'M-트랙' 안에서도 아이패드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비행기 내는 물론 길거리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이패드 등장은 곧 신문과 방송 산업에도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

신문사의 매출은 계속 줄고 있고 방송 광고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분산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50여 개의 잡지를 발간하는 한 업체는 현재 15개의 잡지를 아이패드에 탑재했으며, 내년까지 모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는 인쇄된 잡지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이패드에 탑재하는 것이 인쇄물보다 광고 수주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변혁은 기차 1인 다역 시대를 맞은 것이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겪고 있는 진통이었다. 인건비를 줄이고 사진과 동영상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교육지 책으로 1인 다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나 CNN 등도 1인 다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있고 노조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프랑스 르 피가로에 경우 노조에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취재기자가 사진까지 찍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도 사진기자가 동영상까지 맡도록 요구하고 있다.

CNN도 1인 다역을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시험 중이다. TV뉴스는 이미지와 정보를 합쳐 전달하기 때문에 편집 기술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CNN 국제국의 한 기자는 "우리는 전문화되는 것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자는 1차적으로 보도용 기사를 작성하지만 2차적으로 사진과 전송 기술도 가져야 한다. 특히 영상 및 사진기자는 1차적으로 사진(영상) 촬영이지만 2차적으로는 기사도 작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호세주립대학의 김 교수는 "내 전문분야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면서 "글만 잘 쓰는 사람에게 주는 일자리는 없게 될 것이다. 글 쓰는

능력이 30%이고 멀티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70%인 사람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방송사 간부로 있다고 소개한 뒤 "아내가 일하는 방송사에서는 모든 응시자에게 멀티미디어 시험을 친다. 합격하면 TV 보도뿐 아니라 기사와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1인 다역이 전문성과 기사 및 영상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청자들은 바로 현장의 뉴스를 원한다. 사진과 영상의 질을 그다지 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국 방문기간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에 놀랐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의 부작용, 즉 악성 댓글,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자살사이트가 자살을 방조하고 사주한 것에 대해 제재하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는 헌법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산업의 빛과 그림자도 목격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 벨리에서 발행되는 머큐리뉴스가 최근 미디어업계의 그늘을 보여줬다.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신문은 베트남과 중국, 일본, 중동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특파원까지 둘 정도로 전국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실리콘벨리 정도를 커버하는 지역지로 추락했고 사무실 곳곳이 유령사무실로 바뀌고 있었다. 전문기자를 자르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디오 기사를 채용하는 발상 등이 최근이었다. 그리고 웹으로 좀 더 일찍 눈을 돌리지 않은 것도 몰락을 자초했다. 이제야 아이패드용 콘텐츠와 편집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몇 년 뒤 다시 방문했을 때 그 언론사가 존립하고 있을지 걱정이 됐다. **AF**



천둥을 일으키는 (Bringing The Thunder) 마법사



에어쇼의 숨은 주역,
미 공군 썬더버드 특수비행팀 정비사



존 겔모어 소령과 브라이언 스펡글러 상사가 텍사스 주, Lackland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를 위해 항공기를 준비시키는 모습. 썬더버드팀이 창공으로 나가기 전, 모든 항공기가 비행 준비를 갖추기 위해 정비사는 세부 점검을 실시한다.



호세 힐다고 중사가 Lackland 에어쇼 준비를 위해 항공기를 닦고 있는 모습



에릭 알버스 중사가 워 패널에서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모습. 정비사는 항공기가 상시 직전운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점검과 수리를 담당한다.



에어쇼에서 제니퍼 플로레스 하사 및 본 코플랜드 하사가 썬더버드의 공중가동을 추적해서 기록하고 있다.

“모든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자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물론 이보다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공군장병에게 “모든 훌륭한 조종사 뒤에는 훌륭한 정비사들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이 있다면 아마도 미 공군 특수비행팀 “썬더버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창단 57년간 썬더버드는 정비문제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기록은 썬더버드가 미 공군에서 가장 뛰어난 인력을 보유하고서가 아니라 팀원 전원의 마음속에 공군의 핵심가치를 지향하는 열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누구한테서도 ‘그건 내 업무가 아니니까.’라는 이유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썬더버드 팀의 선임 정비사 리 데이비스 상사의 말이다. “이곳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팀을 위한 일에 뛰어드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동료 간 팀워크라면 가히 최고라 할 수 있죠.”

“혹자는 저희를 최고 중의 최고들이 모인 전문집단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리 데이비스 상사가 덧붙였다. “물론 각자 분야의 최고 전문요원들이긴 하지만, 더 큰 장점은 이들이 적시 적소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외부에 더 훌륭한 F-16 항공전자 기술요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바로 이곳에서 지금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의 이러한 공통된 마음가짐은, 썬더버드의 일부 지원 요원들이 일반 항공정비사 특기가 아닌, 항공지상장비 등 다양한 특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고유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항공기 정비를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타 공군 부대에서 흔히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일반 비행대대에서는 제가 항공기를 직접 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썬더버드 대대의 항공 지상장비 요원 및 보조 정비사인 제이슨 윌슨 하사가 말한다. “항공지상장비 요원으로서 제 임무는 장비를 항공기와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항공기를 직접 정비하고, 정비사가 되어 그들의 일상 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보조 정비사가 항공기 기체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썬더버드 팀원들은 전임 정비사로부터 OJT(On-The-Job training)교육을 통해 실무를 익힌다.

“공군 최고의 정비요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썬더버드 대대의 톰 미켈 주임상사가 설명했다. “저희는 또한 팀에 내부 품질관리 요원이 있어, 이를 통해 관리 감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윌슨 하사는 “부대에 처음 들어올 때, 만약 3단계 수준이었다면, 기술과 경험을 쌓아 이곳을 나갈 때는 5단계 또는 7단계의 수준이 되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소감을 표했다.

썬더버드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3년간의 기간이 끝나고 일반 비행대대로 복귀하는데, 이곳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팀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얻어 가게 된다.

“이곳에서 매일 자부심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미켈 주임상사가 말했다. 모든 팀원들이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사실이, 썬더버드의 조종사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썬더버드의 조종사는 자신들이 안전한 항공기를 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는 조종사들이 주기장에서 탑승 후 바로 출격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썬더버드의 전임 정비사인 네이든 칸즈 하사가 말한다. “다른 전투 비행대대와는 달리 썬더버드의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기체를 돌며 하는 육안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썬더버드의 조종사들은 정비사들이 임무를 다해 조종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다고 중사가 에어쇼에 앞서, 항공기 광택을 내고 있다.





앤드류 도날드슨 하사가 lackland 에어쇼 공연 후 항공기를 구성구석 말끔히 닦고 있다.



랜스머피 중사가 Airshow 후 썬더버드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비행 후 썬더버드의 캐노피를 닫는 모습

보조정비사가 썬더버드의 F-16항공기 11대를 각각 점검하고 검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전임 정비사가 재점검을 하고, 검사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총 제조 감독관이 검사를 마치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면, 항공기는 전투준비 완료가 된 것이다.

“조종사가 탑승 전후 육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정비사들의 역할은 더욱 부각됩니다.” 컨즈 하사가 말한다. **“3천만불짜리 항공기를 직접 정비하고, 조종사의 목숨을 책임진다는 점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역할이 저희가 훈련받은 이유이자 임무입니다.”**

“저희는 조종석 내의 스위치 하나하나까지도, 조종사 개인이 원하는 상태의 수준이 되도록 정비를 합니다.” 컨즈 하사가 덧붙였다.

썬더버드의 정비사들은 또한 전투관련 실전 정비 업무를 더불어 수행해야 하므로, 팀의 모든 멤버들이 적절한 훈련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만약 지휘관이 전장에서 우리 F-16 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비사들은 항공기가 완전한 전투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컨즈 하사가 설명했다.

“저희는 썬더버드의 항공기를 전투수행 능력 상태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72시간 이내 이 모든 작업을 끝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장 작업을 제외하고, 40시간 내에 이러한 전환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우리들은 언제든지 신속히 항공기를 전투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정비사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지만, 부대에는 이러한 조종사와 정비사를 모두 지원하는 일반 공군장병들도 있다.

“우리 팀은 정비사 외에도 다른 여러 병과의 장병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켈 주임 상사가 설명했다. “저희 부대를 구성하는 장병들은 관리, 보급,

항공 수송, 정보 작전, 클라이언트 시스템, RF 트랜스미션, 공보 등 관련 특기만 해도 무려 32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팀원들도 역시 썬더버드가 최우선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본인의 임무에 임하고 있으며, 정비사들이 F-16 항공기를 준비시키는 동안 항공기에 장비를 탑재하고 하역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비스 상사가 설명했다.

“전임 정비사든, 관리 담당관이든 모든 인원은 각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으며,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상사가 말했다. “이렇게 다양한 특기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생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썬더버드의 정비사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더버드의 정비사들은 자신의 임무가 여타 공군 부대와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

“정비의 기본 원칙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썬더버드의 정비장교, 제이슨 무어 소령의 말이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저희는 장병들 중 가장 의욕적인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어 소령은 “모든 부대원들은 썬더버드 팀이 57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비 문제로 인해 에어쇼 임무가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부대원들은 성공적인 에어쇼를 위해 계속해서 항공기 정비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상사는 말했다. “썬더버드 팀은 이러한 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과정에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군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을 통해 공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군의 활약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AF**



루프트바페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영국의 상공을 지키는 본토방공전은 1940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세계주요항공전사 ②

영국 본토 방공전(Battle of Britain)

현대 항공전의 시발점이 된 전투



독일은 하인켈 He111 등 폭격기 전력을 주축으로 영국 공군의 전투기와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였다.



독일은 뛰어난 기동성과 고도상승능력을 자랑하는 메서슈미트 Bf 109 전투기를 호위세력으로 참가시키며 영국 전투기 세력을 유린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공군은 쌍엽기 글래디에이터가 주축일 정도로 전력 증강이 요원했다.

영국 공군은 뉘트게나마 호커 허리케인(사진)이나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등 현대적인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독일과의 결전을 준비했다.



영국 본토방공전 상황도



1940년 여름에 이르자, 제2차 세계대전의 광풍은 전 유럽을 휩쓸어 독일은 유럽을 통일했다. 프랑스와 베네룩스 3국이 허무하게 독일에게 점령당하자, 영국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나마 비좁은 영불해협 덕분에 영국은 독일 전차부대의 맹렬한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불해협은 농담처럼 '세계 최대의 대전차 호'라고 불렸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영국과 평화협상을 하거나, 영국을 점령해야만 히틀러의 원대한 이상, 소련을 격파해 위대한 게르만 제국을 구상한다는 야망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평화협상을 맹렬히 거부했고, 결국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영국을 점령할 상륙작전을 구상했다. 그에 앞서, 독일이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 우선 성취해야 할 것은 우세한 공군력을 통한 제공권 확보였다.

4일 만에 격파하겠다

독일 공군은 영국 본토공격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영국 공군은 수적 열세에 더하여 준비태세가 미비하여 손쉽게 격파할 수 있는 상대라고 루프트바페(독일 공군) 사령관 헤르만 괴링 원수는 평가했다. 그는 영국군 전투기 사령부는 단 4일 만에 격파할 수 있고, 4주 후에는 영국에는 항공기가 남아있지 못할 것이며 그 생산능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영국 공군의 준비태세는 미비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공군은 부유층 자제들의 사교클럽 같은 분위기였다. 1937년까지만 해도 영국의 일선 전투기는 글로스터 글래디에이터라는 쌍엽기로 무장은 기관총 4문이 전부였다. 이 기종은 독일 공군의 주력인 메서슈미트 Bf 109 전투기의 적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1937년에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가, 1938년에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캐논과 기관총을 장착한 전투기가 주력으로 떠올랐다. 적군의 폭격기 편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대구경 탄환을 발사하는 캐논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였기 때문에, 캐논과 기관총을 혼용하여 탑재한 전투기들의 도입은 영국 제공권 수호의 핵심이었다.

또 한 가지 영국군이 숨겨 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레이더와 지휘통제체계였다. 1차 대전 이후부터 프랑스의 침공을 두려워

한 영국은 이미 1920년대부터 항공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최초에는 음향탐지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기경보체계는 우수한 지휘통제체계로 발전해 나갔고 후에 레이더가 결합되면서 수적 열세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승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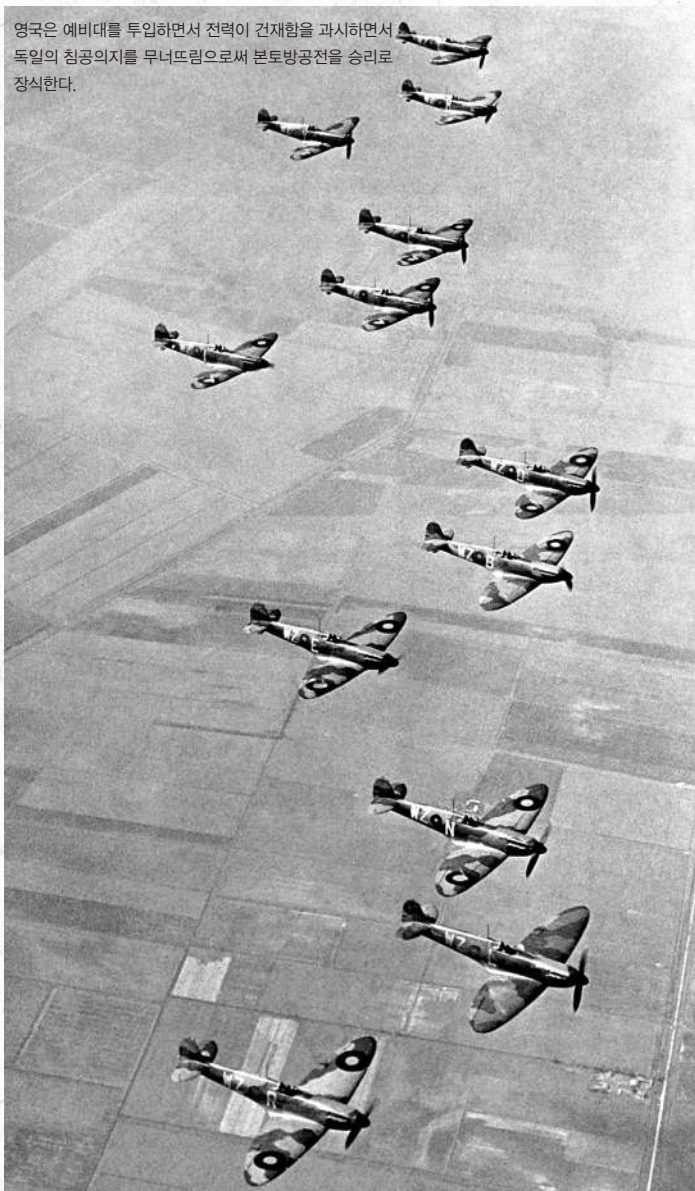
독수리의 날

루프트바페의 작전계획 핵심은 영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을 소모시키는 것이었다. 해안 경계병력, 공항, 레이더 기지와 함께 항공기 제작시설까지 루프트바페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작전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공격 1단계는 영국 남부해안 및 항만, 인근에 향해 중인 선박을 목표로 공습을 가하면서 '해협 전투'를 통해 영불해협 제공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제공권의 확보가 끝나면 총공세일자인 '독수리의 날'부터 제2단계인 '독수리 공격'을 실시하여 공중에서 영국 공군을 괴멸시킨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투가 벌어졌다.

- 7월 10일 ~ 8월 11일 : '해협 전투'
- 8월 12일 ~ 8월 23일 : '독수리 공격' - 해안 항공기지에 대한 공격작전
- 8월 24일 ~ 9월 6일 : 모든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작전
- 9월 7일 이후 : 영국 도시에 대한 폭격작전

본토방공전 초기인 '해협 전투'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의 격추교환율은 '248 대 148'로 영국이 우세했다. 하지만 독일은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독일은 더 많은 항공기를 잃었지만 영국은 베테랑 조종사와 얼마 되지 않은 전투기 전력을 소진해 나갔기 때문이다. 누구의 전력이 먼저 닳아 없어질 것인가의 소모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싸움의 분수령은 총공세인 '독수리의

영국은 예비대를 투입하면서 전력이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독일의 침공의지를 무너뜨림으로써 본토방공전을 승리로 장식한다.



날'이 될 것이다.

독수리의 날은 원래 8월 10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기상 악화로 3일 뒤인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이날 루프트바페는 모두 1,485 소트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나갔다. '독수리 공격'에서 루프트바페는 영국 공군의 레이더 기지와 전투기 발진 기지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여, 영국 공군 전투기 사령부는 전력의 한계에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괴멸직전의 영국 공군

방어세력인 영국 공군으로서는 독일의 움직임에 제어를 하기 어려웠다. 독일이 목표로 했던 영국의 전투기 발진기지과 항공기 생산시설들은 영국 동남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일 기체를 레이더로 확인하더라도 이들이 어디로 갈지 몰랐기 때문에 영국 공군은 전투기 전력을 집중하여 방어할 수 없었다. 특히 전투기의 발진기지가 목표가 되면서 전투기는 이륙하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공격당하거나 지상에서 재급유와 재무장 중에 피격을 당했다. 활주로는 폭격의 탄공으로 인하여 기체를 착륙시키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영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은 거의 괴멸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에게는 확실히 훔그라운드스의 이점이 있었다. 우선 영국 공군은 적기에 대하여 다수로 공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격추율을 보장했다. 또한 아군의 상공이기 때문에 연료와 탄환이 남아 있는 한 비행을 계속하면서 적기를 요격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격추되더라도 조종사들은 귀환하여 다시 다른 전투기로 전투에 임하였다. 반면 독일은 장거리를 날아와 전투에 임하게 됨으로써, 이동간의 인적/물적 낭비에 더하여 제한된 시간 동안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엉뚱한 사건으로 인하여 영국 본토방공전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독수리 공격'이 한참이던 8월 15일 루프트바페의 폭격기들이 애초에 목표하던 영국 공군기지가 아니라 인근의 도시에 대하여 오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보복으로 베를린을 공습하였다. 그러자 루프트바페는 전투기와 레이더 기지에서 공격목표를 전환하여 런던을 포함한 영국의 주요도시에 대한 폭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루프트바페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독일의 공습이 런던



영국은 우수한 지휘통제체계를 갖추었으므로 비교적 소수의 전력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영국의 효율적인 반격으로 루프트바페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사진은 격추되고 있는 루프트바페의 Bf 109 전투기

에 집중되자 영국 공군은 루프트바페의 전력이 어디로 향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로 공습이 집중되면서 영국 공군 전투기 기지에 대한 공습의 압력이 줄어들자, 오히려 영국은 더욱 효과적으로 전투기 전력을 집중하여 루프트바페의 공습부대를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

최후의 일격

지상 전투와는 달리 본토방공전은 언제 승패가 나뉘는지 쉽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독일군은 영국 방공전력의 중핵인 전투기 전력이 이미 소모되었다고 판단하고 9월 15일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대규모 공습을 준비했다. 그러나 영국군은 독일군 암호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는 '울트라' 암호해독기를 통하여 독일의 움직임을 간파했다.

공군참모총장인 다우딩 장군은 아껴두었던 예비전력을 보강하여 최후의 역습을 준비했다. 심지어는 대공습 전날인 9월 14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루프트바페에게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믿도록 기만전술을 펼치는 한편, 자신의 전투기 전력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9월 15일 운명의 날 독일은 최대의 항공전력을 동원하여 두 차례의 파상공격을 감행하였다. 영국은 무려 6개의 전투기 예비 비행대대를 투입하면서 독일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하여 루프트바페가 60대, 영국공군은 26대의 항공기가 격추되었다.

예상치 못한 영국의 반격에 루프트바페는 좌절했다. 소모전으로 약화되었을 영국 공군이 더욱 강해진 모습을 본 루프트바페는 더 이상의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는 이를 후인 9월 17일 영국 상륙작전을 취소시켰고, 영국에 대한 루프트바페의 공습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야간공습으로 전환되었다. 런던에 대한 공격은 이듬해인 5월까지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V1과 V2 로켓의 공격으로 바뀌었다.

영국의 본토방공전은 현대적인 공중전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효과적인 지휘통제, 레이더와 적군 암호체계를 활용한 선진적인 정보전, 그리고 효율적인 예비대 운영이라는 전략이 합쳐져 전술적 약자인 영국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9월 15일을 '영국 본토방공전의 날'로 지정하여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AF**

루프트바페의 소모적인 공격으로 영국 공군 전투기 사령부의 전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었다. 특히 베테랑 조종사의 손실이 가장 커다란 피해였다.



루프트바페의 공격은 런던 등 주요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영국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것은 오히려 영국 공군에게는 좋은 반격의 기회가 되었다.



독일은 1940년 9월 15일에 '최후의 일격'으로 영국 공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시작한다.



영국은 최신에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사진)를 투입하면서 대규모의 적 공습부대를 치열하게 막아내었다.



LEADERSHIP



어느 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비슷한 조건의 신입사원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상사에게 5명을, 꾸중과 잘못된 지적하는 상사에게 5명을 보내 일을 맡겼다. 1년 후에 두 그룹이 낸 성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칭찬을 받은 직원들은 자신감과 생동감이 가득했고 매사에 주도적이었다. 반면에 늘 꾸중을 들은 직원들은 패배감을 자주 느끼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들었다.

리더들의 착각 중 하나가 '좋은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 보상을 잘 해 주는 것'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급여보다는 사내 인간관계'로 나타났다. 급여보다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은 인정과 존중, 격려와 칭찬, 즉 감정적 보상이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부하들을 관리할 때 잘 못할 때는 철저

하게 따지고 꾸중하는 반면, 잘 할 때는 칭찬에 몹시 인색하다.

어떤 회사의 임원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는 "사장이 아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로서는 봉급 인상이나 보너스로 동기부여를 시켜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나는 "당신은 자신과 부하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감정적 보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감정적 보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감정적 보상을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직원들과의 접촉이 많은 당신입니까? 사장입니까?"라고 물었다. "임원인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나는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계기로 그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직원들에게 급여에 집착하지 않고 직원 각자의 장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일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일, 즉 감정적 보상을 아끼지 않고 베풀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성원들의 욕구는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금전적 욕구 이외에도 감정적 보상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후자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실제로 자녀들이나 직원들이 '잘한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일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으면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된다. 이처럼 부모나 상사에게서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감정적 보상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독자들이 있는 조직은 어떠한가? 나의 팔로워에게 작지만 소중한 격려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서로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팀워크는 감정적 보상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AF**

공군 IN

보라매들의 여름철 임무현장!
서늘하거나 혹은 뜨겁거나

* 기획특집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Pioneers up above

* 포토프레임@AF

* AIR FORCE MONTHLY

나태한 삶은 지옥이다

* 생각하는 그림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공군 각 비행단의 이글거리는 활주로에서 구슬땀을 흘릴 장병들의 얼굴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게도 임무 특성 때문에 여름을 서늘하게 보내는 장병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여름을 뜨겁게 혹은 서늘하게 보내는 공군인들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기 위해 여러 임무 현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본 장병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늘한 곳을 뜨겁게 달구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뜨거운 활주로에서 이마의 비지땀을 연신 훔쳐내면서도 임무 속에서 궁지와 보람을 찾는 그들의 쿨한 모습은 우리 취재 팀에게 벅찬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뛰고 있는, ‘강하고 믿음직한 정예 공군인’들의 여름철 임무현장. 그 듬직한 현장을 저희와 함께 들여다보시렵니까?

비행대들의 여름철 임무현장!
서늘하거나 혹은 뜨겁거나

SO COOL - 제8386부대

하늘 아래 첫 부대, 그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하늘은 안녕하다.

해발고도 1,468.3m. 전군 제일의 최고도(最高度)에 위치해 있는 제8386부대는 완벽한 공중감시를 통해 한반도의 영공을 지키고 있는 레이더 기지다. ‘하늘 아래 첫 부대’라는 닉네임에서도 이 부대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이 부대의 중요성은 조종사들이 이 부근을 ‘한반도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나타난다. 고개를 우로 돌리면 동해가 보이고, 좌로 돌리면 서해가 보인다. 한반도 중심축의 높은 산정에 자리한 이 부대는 감시구역 내의 모든 항적을 식별해 중앙방공통제소로 전송한다. 공군의 중앙집중적 전력 운영도, 안전한 비행도 이러한 레이더 기지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전군 최고봉의 부대라는 자랑과 더불어 부대원들의 긍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 높이만큼의 자부심 말고는 불편한 점 투성이다. 일단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늘 고독감과 싸워야 한다. 긴 이동시간도 언제나 고역이다. 산 아래의

관사에서 산꼭대기의 부대까지 출퇴근 하려면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한 시간 반 정도를 잡아야 한다. 병사들의 경우 휴가나 외박을 나가도 반나절을 손해보는 셈이다. 폭설이나 폭우 등이 있을 때는 길이 끊겨 고립되는 일도 잦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부대의 겨울은 정말 유난히도 길고 춥다. 9월 말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해 다음 해 4월은 되어야 봄 기지개를 켜다. 한창 추울 때는 수은주가 툭하면 영하 20도다. 초속 15미터에 달하는 칼바람이 합쳐지면 체감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간다. 이쯤 되면 야외에서는 춥다는 느낌보다는 아프다는 느낌을 받는다. '살 에는 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임을 실감하는 것이다. 또한 구름 속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습도가 높다. 구름이 지나가 쾌청한 하늘을 맞이할라치면 고산지대 특유의 강력한 자외선이 장병들을 괴롭힌다. 기압이 낮고 산소도 희박해서 격한 운동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해야 하는 8386부대 장병들에게 여름철의 서늘함은 어찌 보면 본전도 못 뺄 보상이다. 그래도 여름철 장병들의 표정에는 행복감이 담겨있다. "조석으로 는 야전상의까지 입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지대라 모기도 없습니다.", "하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 때마다 시인이 됩니다."라며 뿌듯해 하는 그들. 그 열악한 자연 환경에 투덜대지 않고 임무를 위해 젊음을 사르는 그들의 모습에 취재팀 역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SO COOL - 제2MCRC

하늘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눈

대한민국 공군에도 절대 잠들지 않는 '아르고스 Argos :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괴물 의 눈'이 있다. 바로 중앙방공통제소다. 흔히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 Center)라 불리는 이곳을 처음 가 본 사람들은 그 규모와 분위기에 일단 압도된다. 전방의 대형 데이터월에는 복잡한 지도에 수많은 항적들이 표시되어 있고, 수많은 콘솔에는 각각 공중감시수, 방공무기통제사들이 위치해 각자의 임무에 열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감시권 내의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식별과 판단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전국 곳곳에 있는 레이더들이 포착한 항적자료가 이곳으로 전송되어 통합된다. 미식별기가 출현할 경우 MCRC는 체공 중인 전투기, 또는 비상대기 중인 전투기를 투입해 적기인지 아닌지를 식별해야 하며, 적기인 경우에는 귀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귀순기가 아니라면... 그때는 즉각 요격에 들어간다. 이 때는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의 방공포를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전투기가 이륙해 수도권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분. MCRC 근무자들이 한 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교대근무 탓에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육중한 방탄문을 수 없이 지나고 미로 같은 복도를 돌고 또 돌아 들어가는 지하 벙커 안에서 햇빛 못 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선사된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사계절 일관되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근무환경이다.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 있는 MCRC의 첨단 장비들을 위해 항온항습 환경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여름에도 야전상의를 입는 근무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덥지 않고 습하지 않은 여름... 5천만의 불침번으로 고된 임무를 감내하는 그들에게 너무 약소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SO COOL – 중앙전산소 기반체계운영반

디지털 공군이 이들의 어깨 위에

대한민국 공군에는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조직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전산소의 기반체계운영반이다.

이 부서는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등의 전산장비들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한다. 상황관제를 위한 데이터월드 있다. 상상해보라. 고도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만에 하나 전산장비에 이상이 올 경우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인트라넷의 수많은 전자문서와 행정체계, 인터넷 서비스에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작전계획과 운영에 필수적인 C4I 장비들과 네트워크 마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군의 임무 수행에는 엄청난 악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네트워크 침해라든가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전산장비들을 보호하는 정보보호실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전산장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항온항습 장비이다. 고가의 첨단 장비들이 대개 그렇듯 기반체계반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도 항온항습한 환경을 요구한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거나 습해질 경우 장비에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흑자들은 그저 여름을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는 기반체계운영반 요원들을 부러워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비유지를 위해 늘 긴장해야 하고 24시간 모니터해야 하는 사람들, 따스한 햇살을 보거나 잠시 바람을 쐬려 해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정도의 시원함은 결코 호사가 아니다.

SO COOL - 항공기 린스

전투기도 샤워가 필요해!

전투기도 깨끗한 외관을 위해서라면 샤워를 해야 하겠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샤워도 있다. 서산이나 강릉, 군산 등 해안가에 위치한 비행단의 경우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전투기들의 표면에는 염분이 달라붙게 된다. 공기, 안개, 비 등에 다량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안가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은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바닥코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기의 경우는 바닥코팅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표면의 염분을 세척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세척 작업을 항공기 린스라고 부른다. 주기적으로 린스해 주지 않을

경우 항공기 표면은 물론, 장비들도 부식될 위험이 있어 장기적인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작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항공기 린스 장면은 보는 이들을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한다. 린스 시기(대개 보름 주기)에 다다른 전투기는 착륙 후 린스 장비가 설치된 지역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노면의 센서에 의해 바닥의 노즐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분사되어 항공기 구석구석을 시원하게 세척한다. 단, 항공기가 실무장이나 POD 장비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린스를 피한다.

SO HOT - FO(Foreign Object) 제거조

외부입자나 이물질들로부터 항공기를 수호한다.

국가방위를 위해 빈틈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군의 비행단. 그 중에서도 활주로와 격납고 등 주요시설이 밀집된 라인 내부는 적의 침투는 물론,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중요한 국가자산이자 핵심전력인 전투기와 주요 시설, 무장, 장비 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의 침투 외에도 항공기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FO라 불리는 이물질들이다. 돌멩이, 흙, 철물, 나뭇조각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이 항공기의 강력한 엔진 흡입구에 빨려들어갈 경우 항공기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크나큰 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FO에 의한 손상을 FOD(Foreign Object

Damage)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긴 설명은 바로 FO 제거요원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우리의 FO 제거요원들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활주로를 누빈다. 진공청소차를 활용하기도 하고,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이물질들을 수거하기도 한다.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일일이 걸여다니며 청소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그늘 하나 없는 광활한 활주로, 혹서기에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FO 제거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다. 공군의 비행안전과 영공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이 매일 흘리는 땀방울들은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도 모른다.

SO HOT - 조류퇴치반(BAT, Bird Alert Team)

새들이 비키럼, 그래야 너희도 살지!

더워도 잠깐 숨을 죽인 이른 아침. 수발의 공포탄 소리가 하늘을 울린다. 정적도 잠시, 연이어 이어지는 공포탄 소리에 새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사라진다. 검은 선글라스에 기다란 장총을 든 사내들이 곧이어 나타난다. 바로 비행단의 조류퇴치반(BAT, Bird Alert Team) 요원들이다.

이들의 임무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새들을 쫓는 일이다. 전투기가 이착륙을 위해 낮은 고도를 비행할 때 주변의 새들은 항상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고속의 전투기 동체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엔진에 빨려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류충돌(Bird Strike)은 심각한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류퇴치반의 임무는 전투기들의 이착륙 지점에 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도 살리고, 전투기도 지키고, 새들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의 어깨 위에 있다.

이들의 임무는 추운 겨울에도 힘들지만 여름철에 특히 고되다. 뜨거운 태양열과 복사열로부터 피하기 위해 사파리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착용해 보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바 오듯 흐른다. 비행안전을 위해 성하의 활주로를 누비는 그들에게서 활주로보다 더 뜨거운 젊음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SO HOT - 소방구조반

화마(火魔)로부터 전우와 항공기를 지킨다.

비행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 또한 일선 비행부대에 있는 최첨단 기술집약체인 항공기, 각종 무장, 유류 등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비행부대에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특수한 '소방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4인 1조를 팀으로 24시간을 쉼 없이 출동대기한다. 상황이 걸리면 30초 이내에 소방차를 몰고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 비치하고 있는 은빛 방열복을 착용한다. 방열복을 착용하고 화재진압에 임하거나 화재진압훈련을 한다는 건 사계절을 막론하고 엄청난 고역이다. 숨 막히고 답답하고 덥고 무겁다. 하물며 차 안이 뜨겁게 데워져(?) 있는 여름철의 괴로움을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으랴. 화재상황이 없어도 기량 향상을 위해 한 해에 30회 이상의 출동훈련을 한다고 하니 적어도 그 때 만큼은 공군의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숨이 턱밀까지 차오를 때마다 이렇게들 되된다. '견디자. 우리가 꾸물거린 1초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니.'





SO HOT - 항공기 정비사

폭염도 무릎 꿇는 장인정신

쭉 뻗은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르는 전투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위용은 수많은 지원요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만들어진다. 그 중에서도 정비사들의 공은 단연 첫 손에 꼽힌다. 착륙한 항공기를 점검하고 다음 비행을 준비시키는 일상적인 비행지원에서부터 기관정비, 항공전자정비, 무장정비, 그리고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완전히 해체해 정밀진단하고 재출고시키는 창 정비까지... 정비사들의 임무 영역은 공군의 작전반경만큼이나 넓다.

별 보고 출근해 별 보고 퇴근할 정도로 일선 정비사들의 스케줄은 빡빡하기만 하다. 외우다시피 익혀야 하는 기술서적은 끝이 없고, 분석해야 하는 케이스연구도 날마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육체적 피로도나 지적 스트레스는 마음의 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자신이 정비한 항공기가 무사히 이륙해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고 제 시간에 착륙해야만 비로소 정비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어떤 정비사들은 자식보다도 항공기 때문에 더 마음을 졸인다고 말할 정도다. 혹서기의 뜨거운 태양에도, 한껏 달궂진 콘크리트의 이글거림에도,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굉음과 열기에도 굴하지 않고 항공기 정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

- 항공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기초 -

연재순서

1. 시작하면서
2. 군사이론에 대한 견해의 차이
3. 군사이론 옹호론자와 배척론자
4. 전략범주의 이해
5. 끝맺음

4. 전략범주의 이해를 위해 -오해의 극복을 위한 변별

그렇다면 전략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전략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을 분명하게 가름해 주는 두 가지의 맥을 들어보자. 첫째는 전략을 과학적 교훈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집행의 기술로 보는 경향이다. 전자는 방법은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역사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전쟁수행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반면 후자는 전략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노력이므로 집행방법의 효과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 기술적 방법(skillful method) 즉, 술(art)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오래된 논쟁거리의 주제이기도 하다. 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입장의 장단점을 모두 수용해 전략은 “과학(science)과 술(art)”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전략을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행정이나 정책을 다루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근래 들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관점이 있다면 “과정으로서의 전략”(strategy as process)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략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계된 생각의 방법’(The Way of Thinking)이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전략을 그 대상의 수준, 즉 전쟁의 형태에 맞추어서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일련의 전투를 배열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혹은 전략을 전쟁 이상의 수준, 국가전략이나 대전략의 측면에서 “국가의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준비, 대비, 운용하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전략을 전쟁의 도구적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략은 목표수단의 상관관계에 관한 생각의 방법이라는 폭 넓은 관점을 제시해, 전략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되는 전략이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양새를 갖는다.

○ 큰 구상(Grand Design) :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 기록에 관한 면밀한 연구에서 추론되기 보다, 전략이란 용어가 경험적으로 추상화된 차원에서 보편화되면서부터 널리 인식됐다. 전략은 구체적인 절차나 기법을 다루는 정책 또는 전술과는 달리 계획의 저변과 근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종 기획(planning)이나 기초라는 용어로 혼용돼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선택과 절차에 관한 순서적 의미와 방침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엄밀한 차이점이 있다.

○ **준거의 틀(conceptual framework : and/or paradigm)** : 흔히 군인들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이보다 넓고 깊다. '준거의 틀'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고, 어떤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획득한 해답을 해석함에 있어 어떠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를 규정해 주는 나침반과도 같다. 따라서 준거의 틀로서의 전략은 교조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어진 개념을 근거로 판단하고 판정하는 것이 아닌, 이론을 통해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추구하며 수단의 적절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 **행동철학** : 현실은 객관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삼으면 전략은 인식과 행동의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전략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관심을 두기 때문에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런 연유로 전략은 상황여건과 인식, 이에 대한 과정들을 고려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것이다.

○ **이데올로기를 전략으로 오인하는 경우** : Gregory D. Foster의 견해를 따른다면, [Gregory D. Foster A Conceptu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Strategy,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90 p. 53](#) 전략과 이데올로기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도화한 "집성된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나, 두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략은 이해를 위해 지식을 추구하며 이를 논리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지식이 권력(power)에 봉사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조작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은 전략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감스럽게 이것은 전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전략 개념이다. 전략과 정책을 둘 다 선택(preference)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

로 형성된 도그마(dogma)를 강요하거나, 또는 이를 단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략은 지적작업의 과정이지만, 이데올로기는 지성통제(知性統制)의 과정이다. 전략은 지적 융통성을 추구하지만, 이데올

로기는 권위적 규칙들을 강요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인위적이고 왜곡된 견해를 강요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래서 전략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지만, 이데올로기는 맹목적 지지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외집단(out-group)에 대한 내집단(in-group)의 힘을 공고히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렇게 될 시, 전략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현실에서의 합목적적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슬로건 또는 모토가 되어버린다.

○ **운용의 술(operational art)을 전략으로 오인하는 경우** : 전략-정책-전술 또는 전략-작전술-전술로 위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권위적 발상이다. 즉, 권위적 서열의식에 의한 사고가 그러한 위계를 구축한다. 더군다나 후자와 같은 형태의 구분은 군사 분야에서만 의미를 지니고, 다른 영역의 사고와 행동에는 참조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 전략은 고전적 수준으로 되돌아가 전투관리의 방법론 정도로 그 영역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소위 위계화된 전략-작전술-전술의 관계는 서열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작위적으로 서열화한 것이다. 군인들의 몸에 밴 서열의식이 이를 편의적으로 나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략은 규칙이나 교리와는 달리 융통성을 갖는다. 그런데 전략을 상하관계, 서열관계 등으로 간주하면 상위개념의 통제범위 내에서만 타당성을 가지게 돼, 보편성을 지닌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전략은

지휘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단순 집행자의 업무절차나 규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될 시, 전략이라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을 논의하거나 수용할 까닭이 없게 된다.

결국 운용방법에 관한 기술은 절차나 순서상의 문제이므로 전략으로부터 파생된 군사관계의 한 속성일 뿐이지, 전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상하의 개념을 상-하위 개념의 관계로 오해하는 것은 개념의 보편성을 폄훼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 **정책과 전략** : 앞에서 인용한 Foster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분별했다. *Ibid., p.55*

전통주의자들은 전략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유감스럽게 이것은 전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전략 개념이다. 전략과 정책을 둘 다 선택(preference)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은 단순히 어떤 문제(issue),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한다. 전략은 그 본질이 근본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전반적인 태세 또는 오리엔테이션이다. 반면, 정책은 비교적 가변적이며 태도나 견해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선택의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책은 특정 입장을 의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론 그 자체이다. 즉,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잘 구성된 방법과 책략을 뜻한다. 하지만 전략은 그러한 방법들을 구성하는 과정에까지 작용하는 사고의 과정과 사고의 방법을 관심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정책을 전략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것은 개념들의 상관관계를 동일 기준에서 비교하지 않고, 권위적인 순서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을 동일 위계선상에 강제 삽입한 꼴이 되었다. 용어를 사용 할 때에는 지칭어와 행위어를 분별하고, 내용어와 행위어를 변별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법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온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부정확성 때문에 논리적 표현과 과학적 사고에 적지 않은 장애를 만나고 있다.

○ **교리와 전략** : 전략과 교리의 차이는 윤리와 도덕의 차이와 비교될 수 있다. 윤리는 훌륭한 행위의 근거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반면에,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즉, 전략은 한때의 성과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교리는 군대의 사회화(socialization)를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견해는 교리의 본래적 의미, 즉, "가르치는 이치"라는 의미에 충실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오용과 남용이 심한 교리의 의미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새기게 해준다. 교리는 개인들의 행동규범을 명시하고 각각의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에 물리적 또는 심리적 영역에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략은 교리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5. 끝맺음

통상 군인들은 사용할 용어를 정의한 다음, 이에 맞춰 글을 즐겨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글의 접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략'을 정의한 후, 전략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했다면, 이러한 전개방식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글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필자는 전략의 '속성'과 '특성'을 논한 후,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전략'의 정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에 관한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상호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개념상의 오류는 실행상의 오류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불후의 명제를 범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AF**

... 전략은 수학이나 철학처럼 대상은 있으나, 현상은 없는 관념적 영역에 속해 있다. 그래서 전략은 이해되기보다는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략에 관한 많은 오해와 각자 다른 견해를 갖게 했다.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6월 25일, 6·25전쟁 제61주년을 맞이하여 공군본부 참모와 직할 부대장, 신분별 대표 등과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 참모총장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충성을 다했던 호국영령님의 명복을 기원했다.

11년 태극연습 작전지휘

참모총장은 5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오산기지에서 2011년 태극 연습을 주관하고 관계관을 격려했다. 첫 날 최초 상황보고회의에서 참모총장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라 참모총장이 처음으로 이곳 오산기지에 위치하여 작전지휘를 하고 있는데, 연습준비에 수고한 오산기지 지휘관·참모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모든 요원들은 연습 간 참모총장의 지휘여건 확인과 함께 작전 지휘를 위한 Battle Rhythm, 지휘소 운영, C4I 등 보완사항 식별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Space Challenge 본선

참모총장은 5월 2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제33회 공군 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본선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선수와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개막행사에서 "열띤 경쟁 속에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를 보낸다."며, "오늘 본선이 조국의 미래를 꿈나무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동경심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체험의 장과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란드·프랑스 해외출장

참모총장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해 군사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번 출장에서 참모총장은 T-50 국산 항공기와 선진비행훈련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당국가의 군 기관을 방문해 군사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파리에어쇼 개막식에 참석 해서는 각국 군 수뇌부와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서울 ADEX 2011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AIR FORCE MONTHLY

2011. 07. NEWS

공군이 주인공인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영화 '비상' : 태양 가까이' 제작현장 공개

대한민국 최초 공중 액션블록버스터 영화의 제작 현장이 언론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비상' : 태양 가까이' 라는 제목으로 제작되는 이 영화에는 공군 조종사, 정비사, 구조사 등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다.



WIBRO 기반 항공기 정비통제체계 구축, KF-16 전투기 JDAM 연동 S/W 공로 인정 지식정보화 메카로 미래 디지털 강군 선도!



공군본부가 국가정보화 유공 단체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4일, 열린 2011년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날 받은 표창은 국가 정보화에 이바지하고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공군은 지난 2005년 수상 이후 이번 두 번째다. 이번 수상은 공

군이 IT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공중작전수행체계를 디지털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군은 2010년 전 비행단에 WIBRO(무선휴대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무선통신망을 통한 항공기 정비통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RFID 무선식별 출입통제체계', '국방 IPTV 시범 운용', '무인 기지경계체계'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또한, KF-16 전투기와 JDAM을 연동하는 소프트웨어(SW)를 자체 개발하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투정보 유통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무기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연동시키는 '전술데이터링크'를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공군을 대표하여 수상한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최승준 준장은 "이번 수상은 국가시책에 맞춰 정비통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작전환경에 적용시킨 결과"라며, "다기를 미래 정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방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기술정보 교류 및 군수협력 증진 물꼬 터키에서 양국 공군 군사교류 활성화 논의

성일환 참모차장은 지난 6월 7일, 터키 앙카라에서 제3차 한·터키 공군 대 공군 회의에 참석하여 하산 악세이(Hasan Aksay, 대장) 터키 공군사령관과 양국 공군간의 군사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09년, '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공군은 양국이 공통으로 운영하는 항공기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와 수리부속 적기확보를 위한 군수협력 합의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국산 항공기 KT-1을 운용하는 터키 공군에게 원활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양국의 KT-1, F-16 조종사 교환근무, 터키 공군 주관 연합훈련인 '아나톨리안 이글' 훈련 참가 등 군사교류를 통해 항공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을 추진할 때 T-50 항공기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신에 전투기 운용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전투입문 훈련기 차기 주력전투기 조종사들, TA-50으로 훈련받는다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KF-16과 대등한 전투기동 성능과 공대공/공대지 무장운용능력을 보유한 TA-50 전투입문 훈련기 20여 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전반기까지 전투 조종사 양성과정인 TA-50 전투기입문과정(LFT, Lead-In Fighter Training)을 신설하여 최신에 전투기를 운용할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TA-50 전투입문 훈련기는 T-50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며 최신 항공전자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미 F-18 항공기에 장착되는 F404-GE-102 엔진, 높은 구조하중 기준(8G)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와 함재기에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하여 최

한편, 기존 교육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로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들은 자대(전투비행대대)에 배속되어 훈련기가 아닌 실전에 운용되는 전투기로 오랜 시간 동안 '기중전환 및 작전가능 훈련'(CRT, Combat Readiness Training)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선 전투부대의 교육훈련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투기입문과정이 운영되면 TA-50으로 작전가능훈련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자대에서는 최소한의 기중전환 훈련만으로 요기 조종사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운용 노하우를 교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성일환 참모차장은 악세이 사령관에게 "한국 공군과 유사한 기종을 운영하는 터키 공군이 동일한 고등훈련기를 사용하게 되면 비행교육부터 후속군수지원까지 표준화된 관리/운영체계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터키 공군

강한 장교 및 부사관, 우리가 전투력의 핵심!

제2방공포병여단, 강한 간부 육성을 위한 간부정예화 훈련 실시



제2방공포병여단(이하 2여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무형 전투부대 육성을 위한 간부정예화 훈련'을 전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여단은 이번 훈련에서 총검술, 도수·집중제식, 방독면 및 화생방 보호의 착용, 화생방 작용제로부터 오염되었을 시 치료제로 사용되는 개인 피부제독제(KD-1), 신경해독제(KMARK-1) 사용법, 응급처치관련 심폐소생술(CPR) 등을 반복·숙달했다. 또한 2여단은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화생방 보호의 등 훈련 교보재를 사무실별로 비치해 일상 업무 속에서도 전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번 훈련을 계획한 최태영 대위는 "공군 전투력의 핵심은 강한 간부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기본적인 훈련이지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장교 및 부사관 정예화는 임무형 전투부대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이다"고 훈련 취지를 밝혔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돼 기쁠 뿐

제8전투비행단 배현경 상병, 림프암 환자에게 골수 기증

제8전투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배현경 상병이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익명의 30대 남성 환자에게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꾸준한 헌혈을 통해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배 상병은 군 입대 전 헌혈의 집을 찾아 골수기증신청서를 작성했었다. 그러다가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본인과 골수가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귀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배 상병은 유전자 확인 검사를 통해 환자와의 유전자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2차례에 걸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였다.

장비정비대대 윤장환 소령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뜻 깊은 일을 위해서 어려운 결심을 한 배현경 상병이 더없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건설의 날 맞아 감사의 뜻 전해

91항공시설전대, 우수 일용직 근로자 초청행사



제91항공시설전대(이하 91전대)는 6월 17일 건설의 날을 맞아 공군의 크고 작은 시설공사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 일용직 근로자들을 부대로 초청해 견학과 오찬 등을 실시했다. 이날 초청된

42명의 근로자들은 공군의 활주로 및 작전시설, 숙영·근무시설 등의 신축 현장이나 리모델링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 중 안전 및 품질관리에 모범이 되는 우수근로자들이다.

이날 행사는 감사장 수여, 기념촬영, 공군 홍보영상 및 자체 제작한 건설현장 동영상 시청,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전투비행단 견학을 통해 공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행사에 참가한 시용기 씨(48세, 제11전투비행단 시설공사 형틀공)는 "평소 관심 밖에 있던 자신들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여 준 91전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군 장병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41년 6개월간의 대장정

10전비, F-5 항공기 주기검사 출고 1,500대 돌파



제10전투비행단 부품정비대대가 지난 6월 3일, F-5 항공기 주기검사 1,500대 출고 기록을 달성했다. 주기검사는 항공기가 일정 비행시간에 도달할 때마다 수행하는 종합예방 계획정비로 비행단 군수지원과 일선

정비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10전비 정비사들은 300시간마다 입고된 F-5 항공기의 부품을 일일이 분해한 후 기능검사와 수리를 마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1969년 12월 F-5A 항공기 첫 출고 이래 41년간 완벽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F-5는 공군에서 장기 운영 중인 항공기로서 예방정비의 중요성이 그 어떤 기종보다도 중요하다. 10전비 부품정비대대는 자체 개발한 <주기검사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 작업을 20단계로 구분하고 항목별 진척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0전비 부품정비대대장 권영경 중령은 이번 기록은 10전비 정비사들의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 이뤄낸 결정체라며, “조국수호의 최선봉으로서 중단 없는 항공작전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완벽한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언제,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생환교육대, '11-2차 조종사 생환훈련 하계 고급과정 실시

교육사령부 생환교육대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1-2차 조종사 생환훈련 하계 고급과정' 훈련을 실시했다.

조종사들이라면 4년 6개월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번 훈련은 조난상황 체험을 통해 생환의지를 배양하고,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으로 조종사들이 생환지식과 기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낙하산 지상훈련 및 해상훈련, 음식물 취득과 은신처 구축, 암벽 등반, 독도법 등을 실전적으로 숙달함으로써 조종사들이 어떠한 조난상황으로부터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생환교육대 대장 이언희 중령은 “유사시 조종사가 적진에 조난되더라도 극한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반드시 생존해 복귀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훈련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실전적 생환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의 전투형 기상예보관을 가린다!

73기상전대, 하계 악기상 대비 전투형 기상예보 발표대회 개최



73기상전대는 지난 6월 16일, 기상전대 강당에서 공군 전 부대 기상예보관 18명을 대상으로 '전투형 기상예보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하계 악기상 대비 기상예보관들의 예보기량 점검 및 예

보 생산능력 검증을 위해 계획되었다. 대회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 및 한반도 내습', '장마전선의 남북 진동', '집중호우 발생상황', '이상고온 및 뇌우 다수 발생상황' 등 다양한 악기상 상황을 즉석에서 부여하고 그 부여된 상황에 따른 정확한 예보자료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우수상은 '중부지방 집중호우 상황'을 부여 받아 예보작성, 브리핑 등 평가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공군사관학교 기상대 김용선 중사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김종석 전대장은 “하계에는 악기상 및 돌변기상이 잦기 때문에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있어 정확한 기상예보가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상예보관들의 업무 능력향상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태한 삶은 지옥이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던 어떤 사람이 도중에 휘황찬란한 궁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궁전의 주인이 반갑게 나와 잠깐 머물다 가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횡재에 그는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한 평생 바쁘게 고생하며 살았답니다. 이제 그저 먹고 자고 싶을 뿐 더 이상의 일은 하고 싶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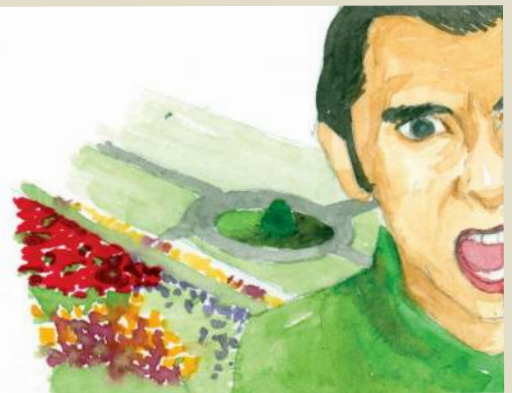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궁전의 주인은 잘 되었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보다 더 적당한 곳은 없어요. 온갖 산해진미를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편안한 침대에 서 실컷 자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궁전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생애 처음 맛보는 엄청난 행복과 희열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있는 생활은 점점 외로워졌고, 무위도식하기만 하는 생활이 조금씩 지겹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전 주인을 찾아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매일 먹고 자기만 하니 아무 재미가 없군요. 소일거리로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찾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궁전의 주인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에는 일이라는 게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몇 달이 또 흘러가자 더 이상 참다못한 그는 궁전 주인을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아무 일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어요. 차라리 지옥에 가고 말지!” 짜증 섞인 그의 말을 들은 궁전의 주인은 경멸하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당신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소? 여기는 원래부터 지옥이오. 힘들여 올라갈 산도 없고 밟아야 할 불바다나 뛰어들 기름 가마솥도 없지만 이곳은 지옥이오. 서서히 당신의 꿈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영혼을 부식시켜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어 버리는 지옥이란 말이오!”

월간 「공군」의 400호 표지를 당신 손으로 꾸며주세요!

월간 「공군」 400호 특집호 표지 제작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밑그림과 설명 형태로 아이디어만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디자인을 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채택된 표지는 월간 「공군」 400호에 실리게 되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주제는 '400'과 '공군'을 연관지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환영입니다.

참여기한 : 8월 31일(수)

참여방법 : 표지규격; 220*280mm (JPG & PSD)
사연 공모는 엽서 혹은 인터넷 제출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호 공군지 담당자 앞

E-mail :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ail(인트라넷)

당첨발표 : 월간 「공군」 400호
(2011년 10월호)

월간 「공군」과 관련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월간 「공군」 400호 특집에 실을 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공모합니다.

월간 「공군」과 관련된 사연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월간 「공군」 400호에
실림과 동시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Culture

36.5

내 이름은 칸

* Hollywood English

운명의 장난 속에 맺어진 죽음의 사랑,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 인생은 아름다워

빈 미술사 박물관

* Behind the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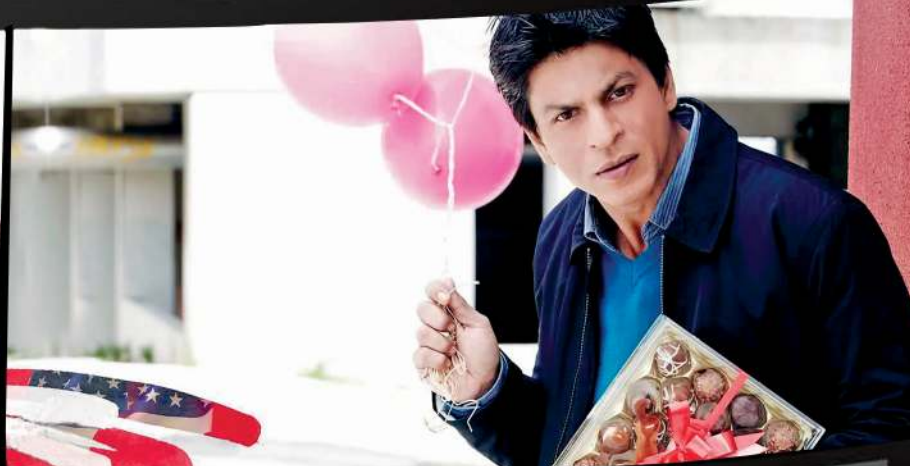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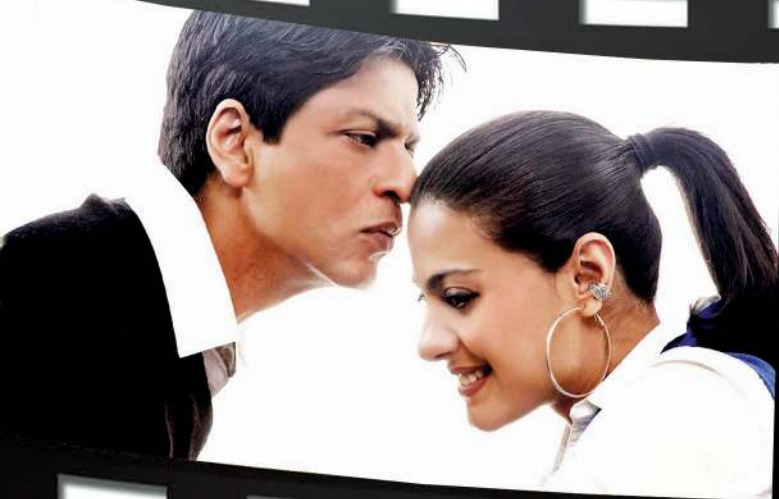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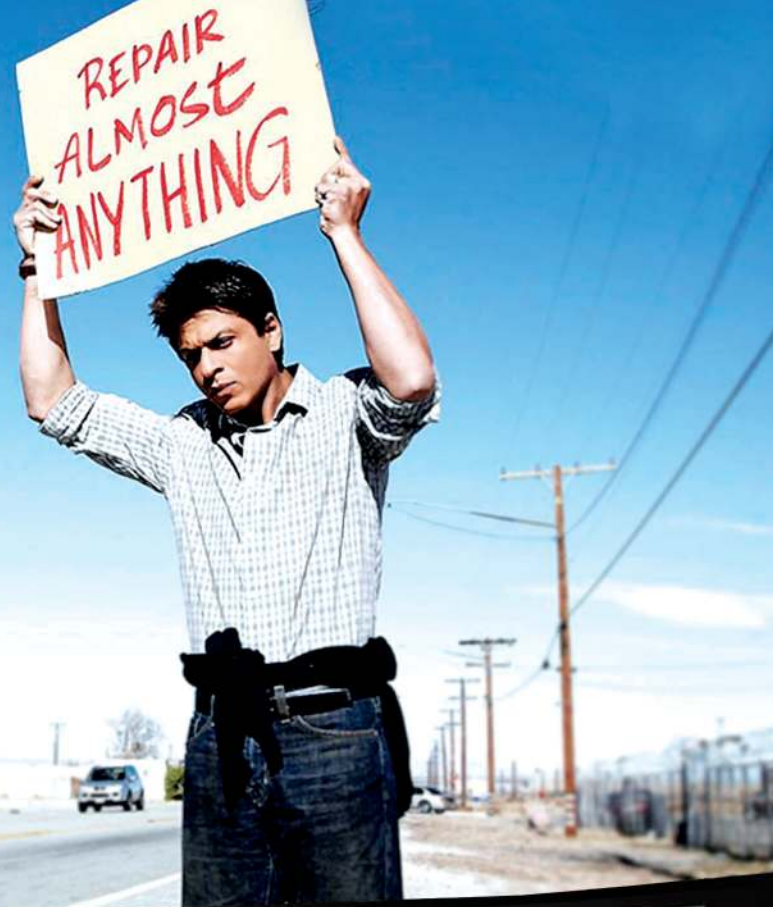
최고의 사랑

* Air-Supply

7월의 문화행사

* Preview

MY NAME IS KHAN



내 이름은 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eauty will save the world.”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대선배인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말을 그가 수상소감문에 인용한 것입니다. 이때 아름다움, 즉 Beauty는 위대함(greatness)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사랑, 정의, 자유, 평화 등의 아름다운 가치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영화 <내 이름은 칸 My Name Is Khan>을 보는 내내 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위대한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용서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다

<내 이름은 칸>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영화가 아름다우면서 위대한 이야기인 이유는 용서(forgiveness)의 위대함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용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 중 ‘예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화를 품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아울러 화나 분노를 내려 놓을 방법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최선의 길은 용서임을 일깨우는 구절이지요. ‘창조주가 인간에게 내린 선물 가운데 용서보다 위대한 건 없다(There is no greater gift than forgiveness)’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걸작이 <내 이름은 칸>입니다.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수많은 군중의 틈에서 연거푸 소리칩니다.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I'm not a terrorist)!” 충격적인 것은, 그가 하필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곧 방문할 행사장 안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점입니다. 현장 분위기가 일순간 험악해 집니다. 청년이 겨냥한 대상은 대통령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곧바로 경악하는 눈초리들이 청년에게 쏩니다. ‘I am not a terrorist’의 외침은 순식간에 ‘I'm a terrorist’로 바뀌어 사방에 퍼집니다. 군중의 환호 소리에 ‘not’가 묻혀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누군가가 놀라 다급하게 외칩니다. “테러리스트다!” 그러자 검정색 정장의 보안요원들이 번개처럼 청년을 덮칩니다. 청년의 이름은 칸입니다. 그는 모슬렘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은 칸>의 주인공 칸은 왜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외친 걸까요? 때는 9·11 이후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칸은 지능이 뛰어나지만 자폐증의 행동양상을 보이는 아스퍼거장애(Asperger's Syndrome)가 있습니다. 언뜻 보아 그는 남들과 다르지만 칸은 순수의 결정체입

니다. 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교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세상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사람이 그들이다(The world includes only two groups of people – good people who do good and bad people who do bad).” 이 교훈을 가슴에 품은 칸은 고향인 인도의 빈민가를 떠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미용사인 만디라를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칸은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만디라의 어린 아들 샘도 칸을 친아빠처럼 따릅니다. 그런데 칸이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납니다. 그의 목적지는 특별합니다. 버스로, 도보로, 히치하이킹으로 칸은 워싱턴 DC를 향합니다. 그래야 하는 사연은 아들인 샘이 살해당한 비극의 결과입니다. 9·11 대참사 이후 샘이 학교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샘은 왜 그렇게 살해된 걸까요? 그 이유를 대면서 어미인 만디라는 칸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힌두 교도인 샘이 목숨을 잃은 건 아빠인 당신의 모슬렘 성을 따랐기 때문이야.” 끝내 분노를 식이지 못하는 만디라의 모성이 급기야 모질도록 쓰아붙입니다. “모든 미국인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 이름은 칸입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My name is Khan. I'm not a terrorist)’ 하고 호소해요.” 비극이 나기 전 한없이 행복하던 시절 만디라의 얼굴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표정은 이제 표정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칸은 떠납니다. 가슴 깊이 파열된 ‘어머니의 사랑’을 꿰매주기 위해,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당신의 분노를 내려놓아요”

“I'm not a terrorist”라고 외쳤다가 테러범으로 몰린 칸은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보통사람인 그가 험난한 여정에서 보여준 비범한 선행들이 TV를 통해 속속 알려진다는 점입니다. 그가 테러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까지도! 방송을 본 만디라의 이웃 친구가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곤 이렇게 애원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내려놓아요(Just let your anger go).” 이웃 친구는 TV 리포터인 남편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가 잃은 여인입니다. 마침내 칸은 풀려납니다. 그 순간 칸은 가까운 어딘가에서 아내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을 만나러 만디라가 먼 길을 달려온 것이지요. 둘의 극적인 포옹이 이어집니다. 만디라의 향기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은유한 향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용서는 바이올렛 꽃이 자기를 밟아버린 누군가의 발뒤꿈치에 뿌려주는 향기와도 같다(Forgiveness is the fragrance the violet sheds on the heel that has crushed it).’ 이제 칸은 아내와 함께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AF**



오페라 무대 위의 사람들 ⑦



운명의 장난 속에 맺어진 죽음의 사랑,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이집트의 땅을 밟아 본 사람들은 말한다. 그곳에 다녀온 이후로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과 태양의 땅을 지키는 거대한 �핑크스. 그리고 그 안에 던져진 한없이 작은 인간... 신과 인간의 성스러운 만남을 위해 몇 만 명의 노예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돌을 날랐고, 어떤 파라오는 평생 동안 그저 피라미드를 짓는 업적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몇 세기가 흐르도록 계속됐던 신성한 순간들... 그곳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이의 순간이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의 결정체다. 그래서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된다.

이집트가 황금빛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시기에도 전쟁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눈부신 사랑 이야기는 이집트 국경을 넘어온 에티오피아 군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집트와 오래 전부터 대치하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군대는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오고, 이시데 신의 신탁을 받은 용맹한 '라다메스' 장군은 에티오피아 군대에 맞서 싸우는 전투를 맡게 된다. 승리를 꿈꾸며 전장에 나가는 라다메스의 마음속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가련하고 송고한 '아이다'였다. 에티오피아의 왕녀로 태어나 이곳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온 아이다는 용맹한 라다메스 장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여인이었다.

멀리서 아이다를 바라보며 "나의 태양, 나의 빛"이라고 노래하는 라다메스.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녀의 머리에 다시 왕관을 씌워주고 싶은 마음에 설렌다. 하지만 사랑하는 라다메스를 바라보는 아이다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않았다. 외로운 타국 땅에서 언제나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줬던 라다메스... 하지만 그의 승리는 곧 아버지와 조국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장에 나가는 라다메스를 보며 아이다는 "이기고 돌아오라(Ritorna vincitori!)"고 기도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다는 흥칫 놀라고 만다. 사랑하는 연인 라다메스의 칼에 짓밟힐 고국의 백성들과 아버지의 시련... 그 끔찍한 상황을 원치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이다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했다.

복잡한 심경으로 고뇌하는 아이다를 지켜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암네리스'였다. 태양의 왕국, 이집트의 왕녀였던 암네리스에게도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 그녀 역시 라다메스를 사랑했던 것이다. 용맹한 장군 라다메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암네리스는 라다메스와 결혼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다. 하지만 라다메스의 마음에는 이미 적국의 왕녀인 아이다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암네리스... 그녀는 라다메스가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거짓을 말한다. 사랑하는 연인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차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아이다... 그녀는 결국 라다메스에 대한 마음을 들켜버리고 만다. 모든 사실을 확인한 암네리스, 그녀는 "나의 저주로 너를 괴롭혀 죽일 것이다."라며 노여워한다.

이어서 들려오는 **개선의 행진**.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행진해 들어오는 개선문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라다메스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초라한 에티오피아 국왕도 서 있었다. 전쟁에 패배해 초췌할대로



초췌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다는 하염없는 눈물을 짓는다. 아이다가 연인의 승리를 기도하는 동안, 에티오피아 백성들은 피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집트 국왕의 자비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던 아이다의 아버지, 아모나스로... 타국의 땅에서 노예가 된 딸과 단둘이 남겨진 아모나스로는 무참히 짓밟힌 백성들을 생각하며 딸에게 조국의 운명을 맡긴다. 에티오피아를 다시 공격할 이집트 군대의 경로를 알아내라고 한 것이다. 또다시 운명의 시험에 든 아이다... 그녀는 또다시 조국과 연인 사이에 번민한다. 고국의 백성을 위해 사랑을 배신하느냐, 사랑을 위해 가족과 백성을 저버리느냐...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아이다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린다. 고민하는 딸 앞의 아버지는 냉정하기만 하다. "넌 내 딸이 아니라, 이집트 왕의 종이다." 아모나스로는 아이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것이다. 저 멀리서 절규하는 백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아이다... 결국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사랑하는 라다메스와 마주한다.

또다시 전장에 출격하는 라다메스... 아이다는 이렇게 노래하며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흔들려 놓는다. "우리의 고향 산천은 자유로운 복된 나라. 꽃향기 가득한 바람이 불고 새들도 노래하며 사랑해. 푸른 언덕과 푸른 들은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하늘의 별들도 우리 위해 축복하리라." 고결한 아이다의 노래에 마음이 흔들린 라다메스는 결국 그녀와 함께 도망을 결심하고, 이집트 군대가 출격할 경로를 누설해 버린다. 바로 그 순간 나타난 아모나스로... 그는 라다메스도 함께 갈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라다메스 역시 조국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운명의 장난 속에 놓인 두 연인... 그들 앞에는 또다시 그들을 시험하는 암네리스가 나타난다. 모두를 잡아들이려는 암네리스에 맞서 라다메스는 아이다가 아버지와 함께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라다메스만을 생포할 수 있었던 암네리스... 하지만 그녀는 라다메스를 또다시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라다메스에게만은 한없이 나약한 사랑의 노예였기 때문이다. 암네리스는 그의 엄중한 반역죄에도 불구하고 아이다를 포기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명예를 잃은 라다메스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이다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를 잃었기에, 결국 산채로 무덤에 매장당하는 형벌을 선택한 라다메스... 모든 것을 잃고 산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라다메스는 마지막으로 아이다를 보지 못했다는 처절함에 눈물짓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그토록 청아하고 아름다운 아이다가 있었다. 삶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이곳에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죽음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두 사람...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고통도 사라지니 기쁨이 넘쳐흐르고 천사의 나팔소리 우리를 맞이하네." 언제나까지나 운명의 장난 속에 놓였던 아이다와 라다메스... 마침내 두 사람은 환희의 죽음을 맞이 할 수 있었다. **AF**



빈 미술사 박물관

15세기부터 500여 년 간 유럽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장품에서 시작된 빈 미술사 박물관은 루브르, 프라도 미술관과 함께 유럽의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힌다.

빈 미술사 박물관은 15세기부터~18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중요 화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막스밀리언 황제가 합스부르크 왕가 최초의 후원자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합스부르크 황제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위해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예술품을 소장했다.

특히 빈 미술사 박물관은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터르 브뤼헬(1525~1569)의 12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 중 풍경화로서 미술사에 이정표가 되고 있는 작품이 <눈 속의 사냥꾼>이다. 이 작품은 브뤼헬의 <계절> 연작 중 하나다. 당시 풍경화는 회화의 한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브뤼헬은 <계절> 연작을 통해 풍경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 작품은 네덜란드를 비롯해 북유럽 풍경화 전통의 기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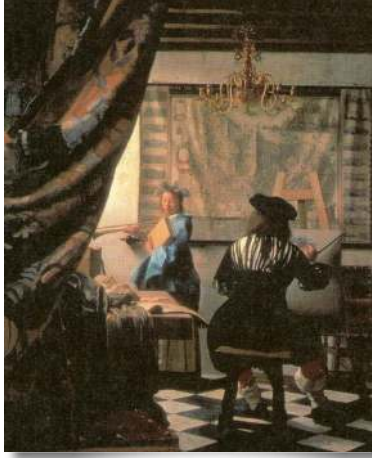
사냥꾼이 눈 속을 뚫고 나와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은 계곡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여유롭게 놀고

있고, 검은 새는 하늘을 날고 있어 전체적으로 평온한 느낌을 주고 있다. 사냥꾼 옆에 있는 양상한 나무들은 마을의 입구를 알려주는 듯 서 있다. 브뤼헬은 사냥꾼이 있는 왼쪽에서 마을이 있는 오른쪽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오른쪽 멀리 바위산이 솟아 있다. 이 산은 1550년 브뤼헬이 알프스를 여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표현한 것이다. 단순한 네덜란드 풍경에 알프스 산맥을 그려 넣은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당시 풍경화는 단순히 특정장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자신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른 풍경과 접목시켰다.

그림 왼쪽을 보자. 사냥꾼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멧돼지 털을 그을리고 있다. 당시 돼지 도살은 보통 1월에 하는 연중행사였다. 또한 붉은색의 모닥불은 거세게 부는 겨울바람임을 알 수 있다. 마을 중앙의 스케이트장에서는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썰매를 타는 사람, 골프를 치는 사람, 컬링을 하는 사람 등 모두 45명의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고 있다. 그들 옆에 짐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

브뤼헬의 말년에 제작한 풍경화 연작 <계절>은 계절마다 각 시기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계절> 연작은 지금 다섯 점만 남아 있다. 세계 2차 대전에 휘말려 소실됐기 때문이다.



〈회화의 알레고리〉
1666~7년경, 캔버스에 유채, 120*100



〈눈 속의 사냥꾼〉
1565년, 패널에 유채, 117*162



〈만 명의 순교〉
1508년, 캔버스에 유채, 99*87

빈 미술사 박물관에서 르네상스 종교화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 알브레히트 뒤러(1471~1528)의 〈만 명의 순교〉다. 이 작품은 서기 4세기경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페르시아 왕 사포가 아라랏 산에서 만 명의 그리스도 교인을 학살한 사건을 담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130여 명으로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다. 순교라는 성스럽지만 잔혹한 주제 때문이다. 화면 오른쪽 흰 터번을 쓰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는 남자가 페르시아 왕 사포다. 사포는 동양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다.

화면 중앙을 보면, 검은색의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다. 그 중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뒤러 자신이다. 그가 입은 검은색의 옷은 순교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의 상복이다. 뒤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서명이다. 이 종이에 라틴어로 '우리 주가 탄생하신 지 1508년 되는 해에 독일인 알브레히트 뒤러가 이 그림을 그리다.' 라고 쓰여 있다. 뒤러 옆에 서 있는 남자는 뒤러의 친구로서, 그가 입은 검은색 옷은 교수의 복장이다.

빈 미술사 박물관이 자랑하고 있는 작품이 안 베르메르(1632~1675)의 〈회화의 알레고리〉다. 이 작품은 회화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커튼이 왼쪽으로 살짝 걷혀진 공간에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여인은 책과 나팔을 들고 서 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화가는 그

림을 그리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다. 낡은 나무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은 그림이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뒷모습만 보이는 화가는 베르메르 자신이다. 아틀리에에 있는 화구는 이젤과 붓, 팔 받침대인 막대 정도이다. 이는 화가가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나타낸다. 팔 받침대인 막대는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손목을 쉴 수 있게 사용한 도구이다.

베르메르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월계관을 쓴 여인은 '역사의 여신' 클리오다. 클리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술과 학문을 담당하는 여신이다. 그녀는 푸른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오른손에는 트럼펫, 왼손에는 노란색 장정의 책을 들고 있다.

세밀하게 묘사한 금색의 상들리에 꼭대기에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 장식 이 달려 있다. 이 독수리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문장이다. 당시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치하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였다.

소장품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고 있는 빈 미술사 박물관은 클림트 등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화가들이 장식한 실내 장식도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빈 미술사 박물관은 같은 크기의 자연사 박물관과 작은 광장들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관람객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F**



"S.E.S 나옵니다!" 막내가 복도에서 큰소리로 외치면, 곳곳에서 교참들이 내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심지어는 샤워를 하다 씻다 말고 나오기도 했다. S.E.S가 막 데뷔하던 14년 전, 군인들에게 걸 그룹이란 문자 그대로 요정이었다. 당시 여성 가수들은 그룹 롤라의 김지현, 투투의 이해영, 솔로 가수 엄정화 등 군인들에게 대개 '누나' 이던 경우가 많았다. 그때 10대의 나이로 귀엽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슈, 유진, 바다를 보니 군인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까지 않는가.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영원한 요정이고, 영원한 '국민 여동생' 일 줄 알았다.

그러나, 이등병에게도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제대가 오듯, 그 요정들도 나이를 먹었다. 이호리처럼 여전히 톱스타로 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요정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슈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바다나 옥주현은 뮤지컬에서 새로운 경력을 쌓았다. 인터넷에서는 지금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원이 돼 살고 있는 과거 걸 그룹 멤버들의 모습이 화제가 될 때도 있다. 10대 시절 '요정'으로 불리며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빠르면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중후반에는 요정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멤버들과 떨어져 현실과 부딪쳐야 한다.

MBC <최고의 사랑>은 그 현실에 부딪힌 여자, 구애정(공효진)에 대한 이야기다. 구애정은 한 때 걸 그룹 국보소녀의 멤버로 활동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막내 멤버였던 강세리(유인나)가 다른 멤버에게 큰 잘못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서 뺨을 때렸고, 그 장면을 기자들에게 들키면서 그룹은 해체된다. 그 사건 이후, 구애정은 국보소녀에서 가장 인기 있던 멤버에서 순식간에 '국민 비호감'으로 전락한다. 그의 차가 톱스타 독고진(차승원)의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때, 독고진은 심한 부상을 당한 척 하며 자신이 헐리웃에 진출하지 못하는 핑계로 이용한다. 하지만 모든 비난은 구애정에게만 쏟아진다. 대중은 구애정이 무엇을 하든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슬픈 건, 구애정은 그 '비호감' 이미지라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구애정의 비호감 이미지를 조롱거리로 사용한다. 소개는 '원조 요정'이나 '아이돌의 조상님'이라고 하지만, 구애정에게 떨어지는 역할은 후배 아이돌 앞에서 덤블링을 하거나, 개구리 옷을 입고 벌칙을 수행하거나 하는 것 뿐이다. 잘 나가는 한의사 윤필주(윤계상)을 두고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해 짝을 맺는 오락 프로그램 <커플 메이킹>의 제작진 역시 구애정을 '비호감 캐릭터'로 이용하기 위해 출연시킨다. 초반에 시청자들의 미움을 잔뜩 받았다가 잔인하게 떨어지는 역할. 구애정도 그 사실을 알지만, 결코 기분나빠 할 수 없다. 오히려 구애정은 자신이 몇 주나마 고정 출연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한다.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구애정은 계속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무능력한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어린 조카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애정이 최고의 톱스타 독고진의 사랑을 받아들이 수 없던 이유도 자신이 독고진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연예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최고의 사랑>의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 독고진과 구애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티격태격하는 로맨스일 것이다. 그러나 그 로맨스가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은 톱스타의 고백마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구애정의 힘겨운 현실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독고진과 구애정의 사랑이 완성되길 바라지만, 구애정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구애정이 돈 많고 성격 좋은 한의사 윤필주와 결혼해 연예계를 떠나 편히 생활하는 것이 나야보일 정도다. 구애정에게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이 KBS <동안미녀>, SBS <내게 거짓말을 해봐> 등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들 중 가장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건, 이 드라마가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톱스타와의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톱스타와 사랑에 빠질 각오를 하기엔, 나는 만만찮은 현실을 견뎌내며 살아야 한다.

<최고의 사랑>은 그 '요정'들, 또는 요정 처럼 살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위로다. 화려했던 시절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거나, 아예 없었던 사람

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요정이 아니라고, 구질구질하게라도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비호감' 처럼 보인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MBC <우리들의 일밤>의 '나는 가수다'에서 옥주현은 '나는 가수다' 출연 이후 온갖 비난의 주인공이 됐다. 아이돌 출신에 솔로 활동 이후 주로 뮤지컬에서 활동했던 그가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도 받았고, 과거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제작진으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을 받았다. 하지만 옥주현은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가수로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고 있고, 노래를 불러 조금씩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옥주현이 '나는 가수다'에서 두 번 연속으로 좋은 노래를 부르자 실력에 대한 의심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 옥주현이 '비호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옥주현이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모습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구애정이 그러하듯,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으로 보이는 삶도 그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일 수 있다. 지금 활약 중인 걸 그룹도 10년 뒤에는 각자의 인생을 살 것이다. 누군가는 결혼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비호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요정이 아닐지라도, **AF**



놀랍도록. 아름답고. 눈부시다!

〈레인〉

〈레인〉은 정제되고 아련하며 독창적이다. 빛과 조명, 퍼포먼스와 아크로바틱, 음악과 시나리오가 더해진 공연은 한 편의 잘 짜인 뮤지컬을 보는 듯하다.

서커스 리허설을 하고 있는 한 극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가운데 젊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펼쳐지는 〈레인〉은 일렉트릭 사운드와 보사노바풍의 음악을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아크로바틱, 아름다운 조명, 창조적인 연기와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2시간 동안 즐거움 속으로 안내한다.

아트서커스 〈레인〉의 압권은 단연 피날레 부분. 제목 그대로 10여 분 동안 비가 쏟아진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만 2000ℓ. 천장에서 쏟아지는 비로 무대는 온통 물바다가 된다. 11명의 배우들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물 속에서 물장구를 치고 공놀이, 줄넘기를 하며 몸을 던져 신나게 미끄럼을 탄다. 흥겹고도 아름다운 피날레는 관객들로 하여금 비를 맞으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게 한다.

- 기간 : 7월 10일까지
- 장소 : 서울 LG아트센터
- 가격 : VIP 10만 / R 7만 / S 4만원
- 문의 : www.lgart.com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한국 최초 공개!

〈2011 오르세 미술관 展〉

오르세 미술관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상주의' 걸작들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친숙한 미술관이다. 파리 센 강변을 따라 들어서 있던 철도 역사를 개조해 재탄생한 오르세 미술관은 한 해 60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이다.

고전주의 대표작가인 앵그르와, 카바넬의 작품은 비너스의 이상화된 모습을 통해 신비스러운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사실주의의 거장 쿠르베, 밀레의 최고작인 〈봄〉을 통해 19세기 발전된 화가들의 꾸밈없는 사실적인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좀처럼 해외 반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의 전성기 작품들과 초기 사진들을 포함한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적 작품들이 대거 전시돼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주말 오후엔 관람객들이 무척 많으니, 소중한 사람과 그림을 보려는 분들은 평일이나 주말 오전에 보다 여유 있게 감상해보자.

- 기간 : 9월 25일까지
- 장소 :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 가격 : 성인 1만 2천 / 중고생 1만 / 초등생 8천원
- 홈페이지 : www.orsay2011.co.kr



Opinion

창공을 생각하는 시간
2011 공군 조종사
자긍심 함양 교육 수기
* 독자기고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 Health Diary

조종사는 풀꽃이다
* 창공 글터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 책마을

창공을 생각하는 시간

— 2011 공군애호단체 안보현장 견학 및 전사적지 답사 —

창공클럽 회원 일행과 나는 서울발 KTX를 타고 6월 9일 정오를 조금 지나 동대구역 TMO에 도착했다. 그런 뒤에야 나는 비로소 이번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6개 친공군 단체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주관으로 '공사모', '국민조종사', '창공클럽', '로카피스', '한국항공소년단',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대표들이 초대된 것이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공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각 단체가 공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히고, 각 단체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공군 정훈공보실이 마련한 것이었다. 이번 여행 기간 내내 나를 사로잡은 것은 '창공'이라는 말이었다.

동대구역 TMO를 출발한 우리 일행은 먼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에 도착했다. 사령관님의 말과 행동에는 공군에 대한 자부심, 군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듯했다. 이어 공군의 활약상을 그리는 영화 '비상: 태양 가까이'에 등장하는 F-15K의 공중촬영 부분을 관람했다. 이어서 24시간 깨어 있는 조국의 눈인 제2MCRC를 견학했는데 너무도 새로웠고, 인상 깊었다. 11전투비행단에서는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 F-15K와 각종 무장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오후 4시쯤에는 CN-235 수송기를 타고 제주로 이동했다. CN-235 수송기의 내부는 그물망 의자로 되어 있었다. 아, 이것이 수송기구나. 날씨가 흐려 비행기 밖의 풍경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는 순서에 따라 조종실 가까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복잡한 계기들과 함께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시간이 조금 남아 근처의 이호해수욕장부터 들렀다. 이곳에서야 창공클럽 회원들은 송문헌 시인의 카메라로 단체사진을 찍으며 서로를 확인했다. 차인숙 소설가, 김영옥, 송문헌, 신수현, 최춘희, 김용범, 그리고 나……, 이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창공클럽의 멤버였다.

잠시 후에는 제주의 로카피스 회원들이 베푸는 유람선 선상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유람선은 제주바다를 항행했다. 생선회를 곁들여 소주를 한 잔씩 했는데, 배가 고팠던 참인지 아주 감칠맛이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각 단체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남은숙 님 등 공사모의 회원들을 알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그런 뒤에는 대정읍 상모리에 위치한 펜션 <바다의 향기>로 옮겼다. 숙소를 배정하고 나서는 펜션의 앞뜰에 모여 차와 술을 마시며 대화시간을 가졌다. F-X 3차 사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등이 주요 의제였다. 나는 줄곧 월간항공 기자,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등의 견해들을 듣기만 했다. 모든 것들이 처음 듣는 새로운 얘기였다. 공군과 자주국방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민족수난의 슬픔이 곳곳에 배어 있어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먼저 송악산으로 이동해 해안 동굴진지를 둘러보았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제는 전략적 요충지인 알프르비행장을 방어하기 위해 송악산 아래 해안에 13개의 동굴을 뚫었다. 송악산 아래의 해안을 걷는 동안 줄곧 최춘희 시인과 대화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곧바로 공군 8546부대로 이동했다. 잔뜩 긴 안개로 제주바다의 먼 풍경을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한만희 대대장님의 안내로 둘러 본 공군 최남단의 레이더 기지의 면모는 매우 흥미로웠다. 대대장님은 제주 지역의 역사, 지리, 풍습, 언어, 문화, 농수산물 등 모르는 것이 없어 듣는 이들을 감탄하게 했다.

이어 창공클럽은 기지 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시낭송회를 개최했다. 김영옥 부회장의 인사말과 자작시 「아버지의 모슬포 육군훈련소」로부터 시낭송회는 시작되었다. 공군군악대의 피지혜 하사는 오보예를 연주해 주었고, 마술병인 윤상호 일병은 놀라운 마술 시범을 선보이기도 했다. 나는 자작시 「물고기」를 모슬포에 맞게 개작, 낭송해 박수를 받았다. 시낭송회를 마친 뒤에는 준비한 도서 및 간식을 부대 장병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 행선지인 대정초등학교는 1908년에 개교한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었는데, 6·25 전쟁 때 공군사관학교가 임시교정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이를 기리기 위해 공군에서는 1987년 훈적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내 버스는 가까이에 있는 강병대 교회로 이동했다. 강병대 교회는 전쟁 중인 1952년, 모슬포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건립됐는데, 지금은 공군 8546부대의 기지교회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에는 알프르비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래 큰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알프르비행장은 1938년 태평양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제가 조성했다. 당시의 격납고, 지하벙커, 진지동굴 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화순포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제주올레 10코스 가운데 약 7km 정도를 걷는 시간도 나를 행복하게 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주로 신수현 시인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 후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항공우주박물관 건설 현장이었다. 제주도 신화역사공원부지의 일부에 자리 잡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은 박물관뿐 아니라 야외전시장, 비행역사관, 항공탐험관, 우주탐험관, 4D영상관 등이 꾸며질 예정이었다. 다음에는 항공우주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오'설록 차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설록차밭을 신수현 시인과 함께 걸으며 잠시 나는 소년의 마음이 되기도 했다. 제주시로 이동해 <차 문화관>에서 차를 시음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마감이 되었다.

일정을 다 마친 우리 일행은 C-130H 다목적 수송기 편으로 대구비행장을 거쳐 서울의 성남기지에 도착해 여정을 끝냈다. 서울로 돌아올 때 탔던 수송기는 제주도에 도착할 때 탔던 비행기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감이 있었다. 엔진소리가 좀 더 크고 요란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공군 정훈공보실에서 주도한 '공군 애호단체 안보현장 견학 및 답사'에 참가하면서 무엇보다 나는 공군의 도저(到底)한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군의 저 도저한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세력들에 의해 창군된 것이 공군이기 때문인 듯했다. 건군 당시부터 공군인사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공군을 이처럼 자유롭고 선진적인 군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공군 정훈공보실의 최영훈 실장님과 손경수 과장님의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도 모두 이런 공군의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AF**



2011 공군 조종사 자금심 함양 교육 후기

나는 일주일에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주 중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권 과장’으로, 주말에는 공군 남편과 함께 지내는 ‘권영미’로 말이다.

많은 군인의 아내들이 그렇겠지만 나 또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더군다나 말로만 들어본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 결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3년 동안의 주말연인을 거쳐 결혼 3년차 전투기 조종사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현재 남편은 광주의 전투비행단에서 교관으로, 난 서울에 있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국제활동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내게 전투기 조종사의 이미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버랩된다. 하나는 아주 가끔씩 보는 ‘조종복 입은 남편’의 피곤에 찌든 모습, 다른 하나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짧은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보는 멋진 파일럿의 모습이다. TV에서 보는 남편의 직업은 남자라면 누구나 갖는 로망으로 한없이 멋지고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일상에서의 남편은 비행에 피곤해 하면서도 언제나 자동차, 프라모델의 취미를 즐기고 소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아무래도 함께 지내지 않으니 나는 분명 다른 아내들보다 남편의 직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내게도 기회가 왔으니 ‘2011 공군 조종사 자금심 함양 교육’이 바로 그것이었다. 평소 접할 기회가 없었던 남편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우리나라 공군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기꺼이 휴가를 내고 6월 2일 남편과 함께 현대인재개발원으로 출발했다.

‘2011 공군 조종사 자금심 함양 교육’은 용인에 위치한 쾌적한 시설의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짧지만 알찬 1박 2일의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모든 강의가 재밌고 유익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고 기억에 남는 강의를 꼽아보자면 우선 민형기 교수님의 ‘국가안보와 공군력’을 꼽고 싶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대 상황 안에서 한국의 경제, 교육, 역사, 자기관리 그리고 공군의 향후 미래 비전까지 큰 틀에서 꼼꼼히 사실적인 부분을 짚고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BEST라는 단어에서 따온 ‘B(Basic)-기본에 충실하자, E(Enthusiasm, Effort)-열정을 갖자, S(Story)-스토리를 만들자, T(Together)-함께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될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차욱환 교수님의 ‘조종사 자금심 함양 교육’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공군 내에서도 밖에서도 조종사를 넘어 한 명 한 명의 대한민국 인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국학원에서 오신 이병택 교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싶다. 종이로 보던 시간표상의 제목으로는 ‘이보다 더 지루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면서부터 ‘이보다 더 재밌을 수 없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단순히 국수주의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좋은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주셨고, 진정한 대한민국 사



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주제에 비해 강의 시간이 짧아 많은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웠으나, 이 강의를 통해 다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들을 국외에 파견하는 것이 내 업무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보다 옳은 방향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김상영 교수의 ‘자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강의는 그야말로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었다.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어느 정도 재테크를 진행 중인 사람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한 강의를 경험을 통한 다양한 예를 들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재치 있는 입담과 어우러진 명확한 제언은 짧은 강의시간이었지만 기본에 충실했기에 아쉬움보다도 얻어온 것이 큰 강의였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용혜원 교수님의 진실되고 긍정의 힘이 철철 넘치는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보다 현명하게 배우자를 대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김상영 교수의 ‘자산관리의 원칙’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돈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윤 좋은 5차 참가자들의 최고 수혜물인 ‘뮤지컬 모차르트’ 관람을 하면서는 연애시절의 낭만(!)은 물론 일상을 벗어난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 무척이나 즐거웠다.

난 이번 교육이 세 가지 측면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로는 공군에서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로는 그 수혜를 본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가족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교육의 높은 강의 수준이었다. 조종사와 아내라는 다소 까다로운 교육생을 대상으로 준비한 교육이지만, 그 두 타겟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거쳐 이 교육이 마련되었는지는 짐작하지 않아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물론 강의실에서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공연 관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부부 대상 강의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훌륭히 충족되었다.

교육 전달, 타 군 공보장교로 있는 후배와 점심을 하며 남편과 함께 이번 교육에 참가한다는 화제를 꺼내자 후배가 ‘이런 교육이 있다는 얘기는 군에서 처음 들어봐요. 역시 공군은 선진적이에요’라는 얘기를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번 교육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군이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역할이 보다 앞서 나간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난 오늘도 여전히 사무실에서는 바쁜 권 과장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있고, 남편은 광주의 BOQ에서 하루의 피곤을 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 이후에 나는 그냥 ‘그런 저런 공군 아내’가 아닌 ‘정말 자랑스러운 공군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업에 대해 넓고 깊게 이해하는 ‘내조의 여왕’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AF**



조종사는 풀꽃이다

어느새 여름이다. 덥고 습한 기운이 우리네 어깨를 짓누른다. 강한 햇살에 눈이 저절로 찡그려진다. 그러나 길가
햇살 바른 둔덕 혹은 바위틈 아니면 시멘트 계단 틈 사이로 빼죽 솟은 풀꽃 한 송이를 발견하면 금세 눈이 빛나고
입가에는 저절로 옅은 미소가 번진다.

강아지풀, 엉겅퀴, 초롱꽃, 팽이밥과 비누풀꽃 그리고 달개비와 개망초꽃이 당당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작고 어린 풀꽃들이 오히려 여름 햇살을 무색하게 만든다.

눈부신 햇살이 활주로에 쏟아진다. 파란 하늘 아래 온몸을 드러낸 활주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 위로 쉴
새 없이 바람이 분다. 햇벌이 짹짹하다가 어느 순간 안개가 앞을 가린다. 그리고 때로는 거센 빗발이 내리친다. 그
러나 활주로 위 은빛 날개는 언제나 당당하다.

한 마리 보라매가 완벽한 비상을 위해 은빛날개를 펼쳤다. 그의 목에 둘러맨 레드 머플러를 닮은 열정이
활주로를 달군다. 거대한 불기둥은 강력한 힘이 되어 하늘로 솟구친다. 바람과 햇살과 장대비를 가르는 은빛날개
의 광음이 지축을 뒤흔들 때 마침내 대자연은 숨을 죽인다. 나도 숨을 죽인다.

이미 비행기는 저 멀리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오히려 숨이 탁, 멎
는 것 같다. 그것은 활주로 위에 남은 무수한 바퀴 자국이 내 눈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검고 굵게 패인 바퀴 자
국이 나를 보고 외쳤다.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에 내가 간다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하늘로 솟구치기 위해 그들은 활주로 위에서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들의 송고한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활주로에 녹아 있다. 진녹색 조종복과 같은 피를 가졌다고 믿는 그들만의 길에는 신념과 도전과
극복이 가득하다. 인내와 자긍심의 표상인 활주로가 그들을 품고 있다.

하늘을 올려다 본다. 구름 때문인가?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머리 위에서 하루 종일
깨어 있다. 보이지 않는 별이 되어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론 천둥과 먹구름과 우박이 그들을 위협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풀꽃과 조종사는 참 많이도 닮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곳곳이 이겨내는 끈기와 힘이 닮았다.
누가 제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풀꽃처럼 그들은 활주
로 위에서 뜨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오로지 해와 달을 벗 삼아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다.

풀꽃의 삶은 한해살이 풀로 끝나지 않는다. 차가운 겨울을 이기고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내민다. 제비꽃,
노루귀, 금보꽃, 양지꽃, 애기똥풀 처럼 작고 어린 꽃이 언 땅을 뚫고 나올 때 사람들의 굳은 얼굴이 서서히 퍼진
다. 엉겅퀴꽃 같은 억척으로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에는 구절초와 쑥부쟁이 처럼 은은한 향으로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쓰다듬는다. 그리고 다시 긴 겨울을 헤치며 봄을 기다린다.

시인 나태주는 ‘풀꽃’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비단 풀꽃뿐일까? 나는 우리의 조종사가 바로 풀꽃이라고 본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택한 길을
묵묵히 걷는 그들. 출세가 보장되지 않은 길을 당당하게 가는 그들.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그들이 바로 풀꽃
이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예쁘다. 오래 볼수록 신념에 찬 그들의 눈동자가 사랑스럽다.
무수한 풀꽃들 이름을 모두 다 알 수 없듯이 조종사 모두의 이름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진녹색 조종복을 입고 있
는 한 그들은 풀꽃이다.

너, 나, 우리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AF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여름나기

STAY HEALTHY

바야흐로 뜨거운 햇살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위로 인해, 체력 소모, 찬 음식의 과다섭취, 지나친 냉방 등에 따른 여름 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무더운 날씨에는 주위환경을 쉽게 오염시키고 음식을 부패시킵니다. 원인으로는 덥고 습한 환경에서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쉽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마와 태풍으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시, 각종 질병들은 더욱 쉽게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건강과 위생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은 '전염병 주의보'를 알리며, 여름철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름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각종 미생물이 창궐하기 쉬워,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수족구병, A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를 포함 세균 및 기생충의 번식이 쉬워 감염 및 전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들 여름철 전염성 질환 중 단골 메뉴로 식중독을 우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세균성 식중독으로는 100도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장독소를 생산해 질병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 식중독, 대변 속에 몇 주 동안 살아있으며 날달걀과 달걀로 만든 식품으로 전염되는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나 보균자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대변/경구전파로 전염되는 세균성 이질, 충분히 요리되지 않은 요리 또는 해산물을 다루는 사람의 손이나 용기에 의해 전파되는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어패류 손질시 균에 오염된 해수 및 갯벌 등에서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패혈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흔하게 들은 바 있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특히 전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 법정 전염병 1군에 속하며, 전염성이 강해 감염시 격리가 요구됩니다.



-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6대 국민건강 수칙 -

-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식사 전, 철저한 손 씻기
- 끓이거나 소독된 물,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이 있을 경우, 상처난 손으로 음식조리 금지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환경 관리
- 설사증상자 발생시 즉시 인근 보건소에 신고



증상 및 응급조치

단체생활을 하는 군부대에서는 초기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추가 전염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 장병들은 다음의 증상 및 응급조치 사항을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식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때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식중독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과 관계된 중한 증상을 일으킬 때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식중독이 의심 될 경우, 우선 가까운 의무대 및 군 병원을 찾고, 동시에 식중독의 경로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식품이 남아있다면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구입한 가게의 영수증, 빈 용기, 포장지 등도 보관하고,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보관·신고해야 합니다.

예방법

군부대에서 유발될 수 있는 식중독의 가장 쉬운 경로는 음식물 및 물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보통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세 가지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세균에 의한 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육이나 생선에 묻어 있던 세균이 손이나 조리기구를 매개로 식품에 붙어 증식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이나 조리기구는 항상 청결유지 및 소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을 보존할 때는 용기에 넣거나 랩으로 싸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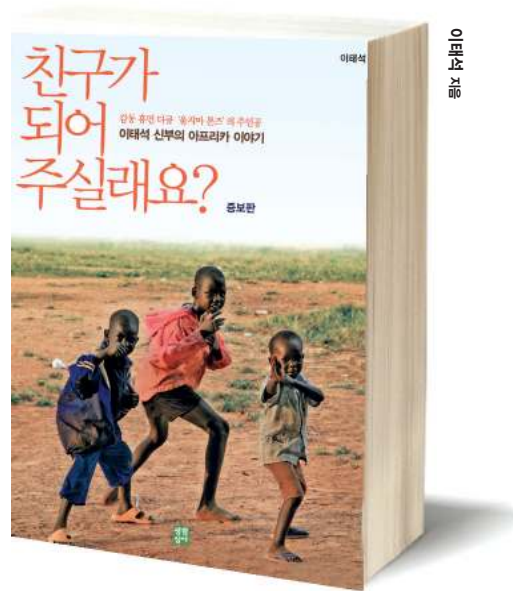
둘째, 세균을 증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식품에 붙은 세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식하므로 세균이 증식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보존할 때는 냉장고에 넣거나, 뜨거운 음식일 경우, 65도 이상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셋째, 세균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식품에 붙어 있거나 증식한 세균을 가열해 죽이는 경우, 식품의 속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한정돼 있고, 가열로도 파괴되지 않는 독소도 있어 가열했으니 안전한 음식이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식중독과 같은 여름철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개개인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 고생하는 공군 장병들께서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 주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하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6대 국민건강 수칙'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AF**





1953년 7월 27일, 3년 1개월 2일간의 짧고도 긴 전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 십 년, 수 백 년씩 전쟁을 치렀던 경우도 있으니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약 3년여 기간의 전쟁은 비교적 짧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전쟁의 고통과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6·25전쟁은 그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 못지않게 긴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쟁의 상흔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훌륭한 국민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한 편에는 아직도 슬픈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들의 역사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지요? 어쩌면 60여 년 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서 경험하셨던 슬픈 역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받았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거나 우리나라에도 아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은데 해외로까지 눈을 돌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숨죽여 지내야만 했고 25년 동안의 내전으로 고통에 신음했던 아프리카의 수단. 그 역사가 어쩌면 우리나라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

단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다가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故 이태석 신부님!

故 이태석 신부님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부가 보장된 의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되신 후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향했습니다. 삶에 있어 한 번의 방향 전환도 쉽지 않은데 두 번씩이나 삶의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 다른 이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선택할 때 신부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울고 있는 톤즈 땅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의학(醫術)과 지식, 음악적 재능을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신부님이 갖고 있는 샘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톤즈의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 병마와의 싸움에서 하나 둘씩 자유로워졌으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60여 년 전 아파 신음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을 밝혀준 이웃 나라의 많은 사람들 처럼故 이태석 신부님도 톤즈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그 친구,故 이태석 신부님은 세상에 안계시지만 그는 대신 다른 많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책마을」 식구들도 톤즈의 친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AF**

2011 July

no.397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7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7월호
퀴즈 정답

1.

2.

3.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4G를
보내드립니다.

2011 July

no.397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월간 「공군」 7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7월 31일까지

1.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 중 하나로 현대 항공전의 시발점이 된 전투는 무엇인가?
2. 합스부르크 왕가의 소장품에서 시작된 미술관이자, 루브르, 프라도 미술관과 함께 유럽의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미술관은 무엇인가?
3. 100도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장독소를 생산해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무엇인가?

5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유로파이터 타이푼 2. 조지 6세 3. 밀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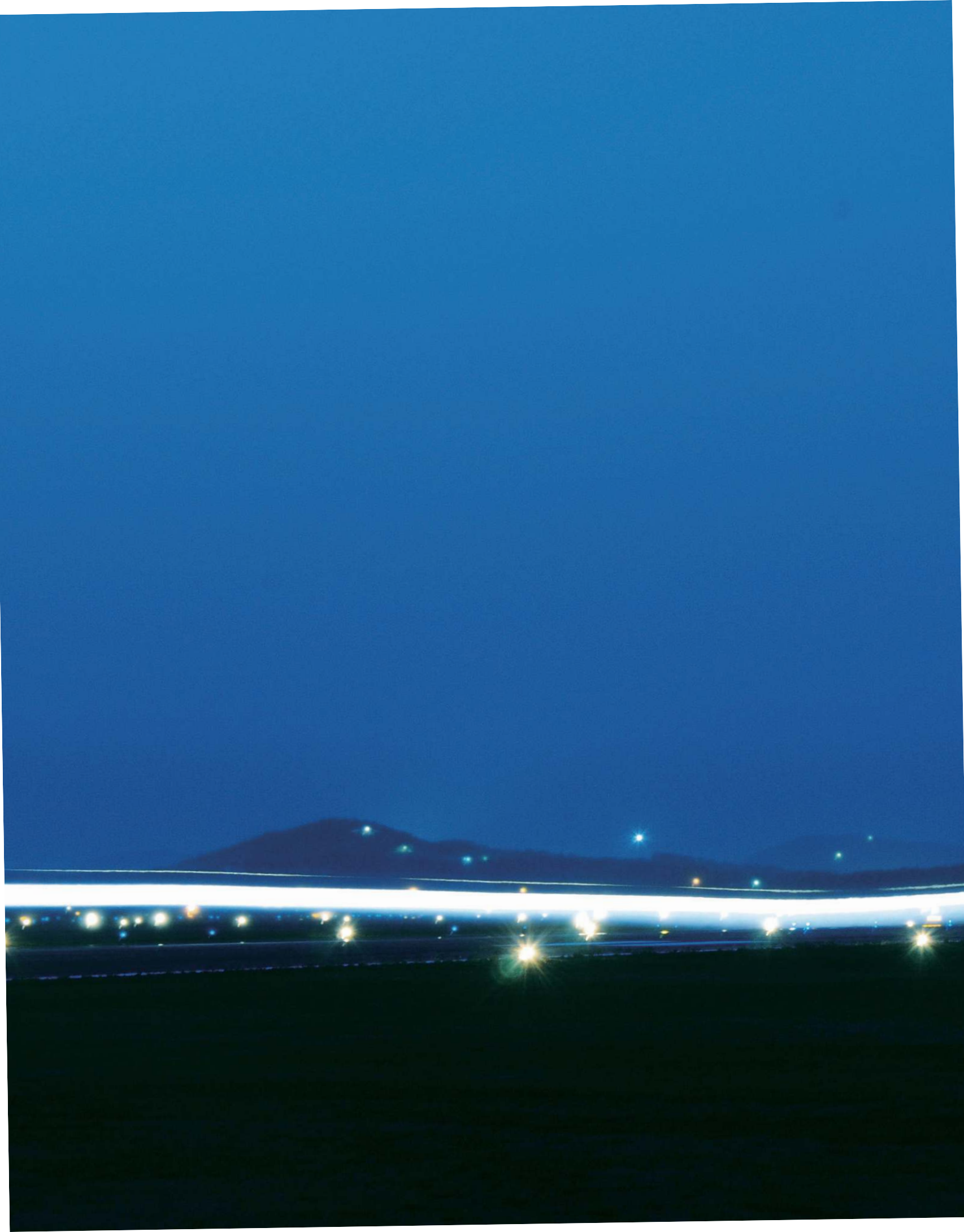
퀴즈 당첨자 부산 강서구 **윤한성** ● 전북 익산시 **김송규** ● 전북 고창군 **안재운**
충북 청원군 **조성현** ● 경기 성남시 **이효상** ● 서울 용산구 **신기훈**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한여름
밤의 **출격!**

